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의 효과성 분석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Crime Prevention Infra Project for Women

손동필 Son, Dongpil
현태환 Hyeon, Taehwan
박유나 Park, Yuna

(a u r i

일반연구보고서 2020-4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의 효과성 분석

Analysis on the Effectivness of Crime Prevention Infra Project for Women

지은이 손동필, 현대환, 박유나
펴낸곳 건축공간연구원
출판등록 제2015-41호 (등록일 '08. 02. 18.)
인쇄 2020년 12월 26일, 발행: 2020년 12월 31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http://www.auri.re.kr>

가격: 10,000원, ISBN: 979-11-5659-300-3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공간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연구책임

손동필 연구위원

| 연구진

현태환 연구원

박유나 연구원

| 연구보조원

백윤지

| 연구심의위원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오성훈 선임연구위원

염철호 선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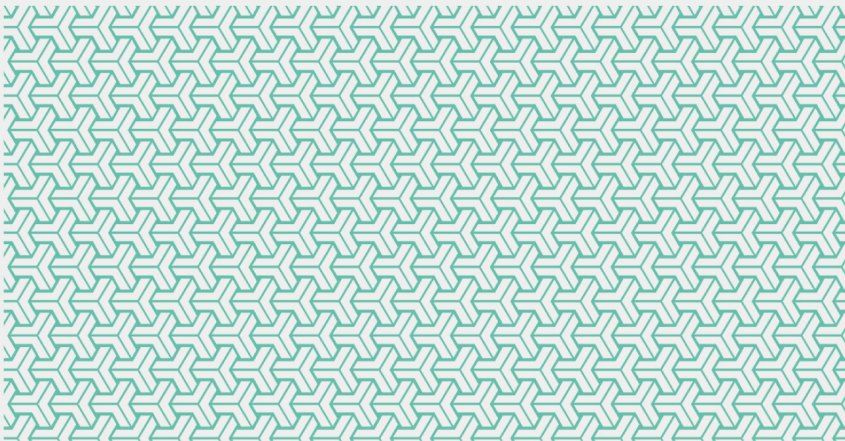
김일환 전문위원

이경훈 고려대학교 교수

홍경구 단국대학교 교수

연구요약

Summary



2018년에 조사된 통계청 사회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된 불안요인 1위는 범죄불안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실제 직·간접적인 범죄피해 경험이 적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상위 3위 국가에 속하며, 여성의 경우 범죄피해에 대한 걱정이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실체가 없는 막역한 두려움은 사람들의 삶의 질 저하, 공동체 활동 저하, 사회경제적 비용 증대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있어 이를 감소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람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오고 있으며, 생활공간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범죄예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주요 목표는 범죄발생 건수 및 범죄 두려움 감소이다. 특히, 그 두려움의 정도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민들의 범죄두려움 감소를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는 범죄예방관련 사업에 대해서 '범죄 두려움'을 집중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범죄예방관련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범죄두려움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사전·사후 범죄두려움의 변화양상을 파악하여 향후 여성관련 범죄예방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사례지역은 노후화된 공장이나 폐공장이 밀집되어 있어 안전에 취약하며, 주거지는 대부분 다가구·다세대 주택으로 침입방지시설이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다. 해당지역은 안전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공장지역과 주거지역의 영역성을 구분하기 위한 시설·기법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또한, 가로공간의 범죄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방범시설을 추가로 설치 하는 등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지역의 범죄예방 성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대상지에 적용된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전·후 지역 주민들의 두려움 변화, 지역 애착도 변화, 범죄 두려움을 설명하는 요인들의 영향력 변화 등을 t-test, 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했다.

사업 전·후 사람들의 범죄두려움 변화를 분석한 결과, 사업 전보다 사업 후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범죄두려움이 대체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특성에서는 남녀 모두 범죄두려움이 감소하였고, 특히 여성은 모든 항목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에서는 50대를 제외하고, 사업 전 대비 사업 후의 범죄두려움이 대체로 감소하였으며, 20대, 40대, 60대의 경우 특정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도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대체로 감소하였다. 1인가구는 밤에 혼자 집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가구들에 비해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특성에서 물리적 무질서는 사업 시행 사전·사후 모두 범죄두려움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사회적 물리적 변인은 사전에는 유의한 변수였으나 사후에는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찰활동 변인은 사업 시행 후, 일반적 두려움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경찰활동을 목격하는 경우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직접피해경험은 사후에만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성별변수의 경우 사전에 비해 사후의 여성들의 범죄두려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의 이론들도 일부 검증되었다. 이처럼 범죄두려움 혹은 범죄 발생을 설명하는데 하나의 특성요인으로 단정짓는 것은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범죄예방 관련 정책은 개인적인 노력 이외에 지역적인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범죄예방을 목표로 하는 여성범죄예방인프라 사업이 단순 물리적 개선에 초점을 맞춰 수행하기보다는 지역적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나 개인적인 취약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제어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 범죄두려움, 필터버블 효과, 범죄예방, 효과성 분석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1) 연구의 범위	8
2) 연구의 방법	8
3) 연구의 흐름	9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0
1) 선행연구 검토	10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6

제2장 이론적 고찰

1. 범죄두려움의 정의 및 유형	18
1) 범죄두려움의 정의	18
2) 범죄두려움 유형	19
2. 범죄두려움 관련 주요 이론	20
1) 개인적 차원에 대한 논의	20
2) 지역적 차원에 대한 논의	22
3) 개인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에 대한 통합적 접근	24

제3장 범죄예방 효과 분석 모델 구축

1. 범죄예방 효과성 분석 모델	30
1) 연구 모형 설정	30
2) 효과성 분석을 위한 변수 설정	30

차례 CONTENTS

2. 효과성 분석 사업 및 대상	36
1) 여성범죄예방인프라 구축 사업	36
2) 분석 대상지 개요 및 사업 특성	37

제4장 범죄예방 효과성 분석

1. 사업 전·후 사람들의 인식 변화 분석	50
1) 이웃관계 및 동네 사람에 대한 인식	51
2) 지역 환경에 대한 인식	52
3) 범죄에 대한 두려움	53
4) 범죄 피해에 대한 인식	56
5) 범죄예방활동	60
6) 종합분석	63
2. 사업 전·후 범죄두려움의 감소 효과 분석	64
3.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사업의 효과성 분석	72
1) 변수 설정	72
2) 기술 통계	74
3) 상관분석	75
4) 회귀분석	77

제5장 결론

1. 연구의 요약	82
2. 정책 제언	83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86

참고문헌	87
------	----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1-1] 야간 보행의 안전도	5
[표 1-2] 시간적 범위를 고려한 사업 효과성 분석 연구	11
[표 1-3] CPTED와 범죄두려움간의 관계 분석 연구	14
[표 2-1] 범죄두려움 개념	18
[표 2-2] 범죄 두려움 유형	19
[표 3-1] 설문조사 항목 및 내용	32
[표 3-2] 범죄두려움과 관련된 요인에 관한 연구	33
[표 3-3] CPTED 사업효과성 분석을 위해 범죄두려움을 활용한 연구	35
[표 3-4] 대상지 선정 기준	36
[표 3-5] 대상지 선정 기준	37
[표 3-6] 연도별 A시, B구, C동 인구현황	37
[표 3-7] 2019년 연령별 A시 B동 인구현황	38
[표 3-8] 2015년 A시 B구 C동 가구규모	39
[표 3-9] A시 B구 C동의 사업 계획 요소 현황	45
[표 4-1] 응답자 인구적 특성	50
[표 4-2] 지역에 대한 애착정도 응답 결과	51
[표 4-3] 동네 이웃들의 지역사회 개입에 대한 응답 결과	51
[표 4-4] 지역에 대한 만족도 응답 결과	52
[표 4-5] 무질서 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	53
[표 4-6] 지역의 안전도에 대한 응답 결과	54
[표 4-7] 거주하는 지역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구체적 장소에 대한 응답 결과	54
[표 4-8] 일반적 두려움에 대한 응답 결과	55
[표 4-9] 구체적 두려움에 대한 응답 결과	56
[표 4-10] 범죄사건 보도기사 노출에 대한 응답결과	57
[표 4-11]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응답결과	57
[표 4-12] 범죄피해위험인식에 대한 응답 결과	59
[표 4-13]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응답 결과	60
[표 4-14] 경찰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응답 결과	61
[표 4-15] 여성범죄예방인프라구축사업의 범죄두려움 감소 효과	64
[표 4-16] 여성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의 범죄두려움 감소 t-test 분석(여성)	65
[표 4-17] 여성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의 범죄두려움 감소 t-test 분석(남성)	66

표 차례

LIST OF TAB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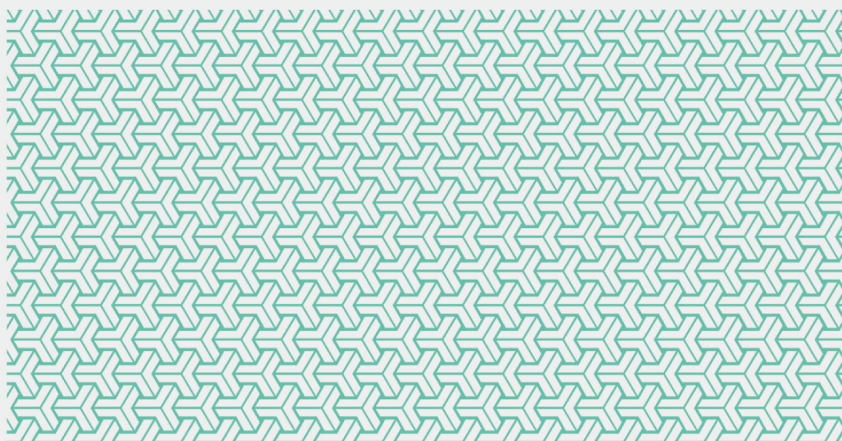
[표 4-18] 여성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의 범죄두려움 감소 t-test 분석(20대) —	67
[표 4-19] 여성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의 범죄두려움 감소 t-test 분석(30대) —	68
[표 4-20] 여성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의 범죄두려움 감소 t-test 분석(40대) —	69
[표 4-21] 여성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의 범죄두려움 감소 t-test 분석(50대) —	70
[표 4-22] 여성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의 범죄두려움 감소 t-test 분석(60대) —	71
[표 4-23] 회귀분석에 활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사전) —	74
[표 4-24] 회귀분석에 활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사후) —	74
[표 4-25] 일반적 두려움과 주요변인과의 상관관계분석 결과(사전) —	75
[표 4-26] 일반적 두려움과 주요변인과의 상관관계분석 결과(사후) —	76
[표 4-27] 일반적 두려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사전) —	77
[표 4-28] 일반적 두려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사후) —	78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 요인	2
[그림 1-2] 범죄 피해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 및 직간접적인 위해 경험률	3
[그림 1-3] 연령별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	3
[그림 1-4] 연령대에 따른 플랫폼 이용률	4
[그림 1-5] 서울 여성들의 범죄 두려움	5
[그림 1-6] 야간 보행 두려움	6
[그림 1-7] 연구의 흐름	9
[그림 2-1] 위험해석모델	25
[그림 2-2] 제안된 환경특성과 범죄의 두려움간의 관계에 대한 모델	27
[그림 3-1] 대상지 위치도	39
[그림 3-2] 대상지 용도지역 현황도	40
[그림 3-3] 물리적 현황	41
[그림 3-4] 건축물 현황	42
[그림 3-5] 주요시설 현황	43
[그림 3-6] 생활안전지도의 범죄 발생 지역	44
[그림 3-7] 영역성 강화 전략	46
[그림 3-8] 감시 강화 전략	46
[그림 3-9] 감시 강화 전략	47
[그림 4-1] 대상지의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에 대한 인식	50
[그림 4-2] 지역환경의 무질서 정도에 대한 사업 시행 전후 인식 변화	53
[그림 4-3] 범죄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장소에 대한 응답 결과	54
[그림 4-4] 범죄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장소에 대한 사업 시행 전후 응답 결과	57
[그림 4-5] 지역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대책 응답 결과	62

제1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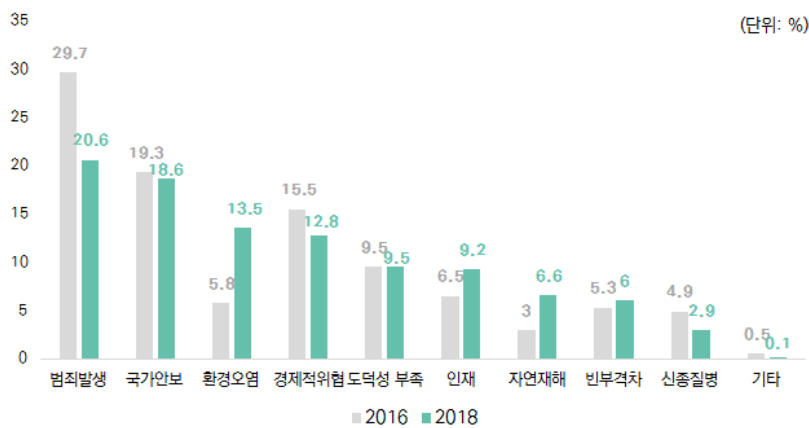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사회의 주된 불안요인인 ‘범죄발생’

2년마다 발표되는 통계청 사회조사(통계청 2018, 11월 6일 보도자료, p.4)에 따르면,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범죄발생’은 여전히 가장 주된 불안요인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 요인으로 ‘범죄발생’을 선택한 비율은 2016년 대비 9.1%p(29.7% → 20.6%) 감소했으나 그 외 요인 중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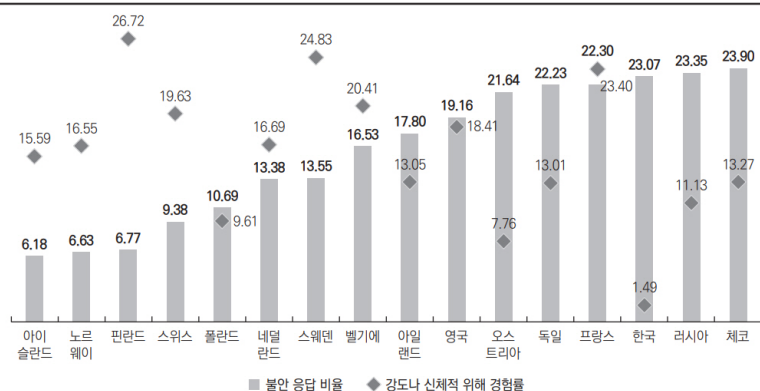


[그림 1-1]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 요인

출처: 통계청(2018, 11월 6일 보도자료, p.37)

□ 범죄발생수준에 비해 높은 범죄 두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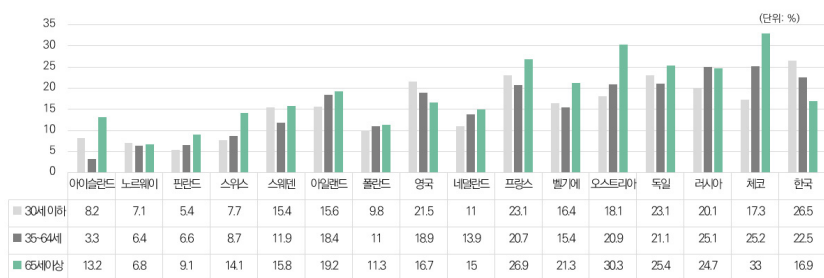
[그림 1-2]와 같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안감 지수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우선희(2018, p. 67)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실제 직간접적인 범죄피해 경험이 분석 대상 국가 중 가장 낮지만,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정도는 상위 3위 안에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민 4명 중 1명이 밤길 혼자 걸을 때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국과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신체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다른 연령대보다 불안을 느끼는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영국과 한국은 34세 이하 연령대에서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우선희 2018, p.67).



[그림 1-2] 범죄 피해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 및 직간접적인 위해 경험률

주: 1)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은 “어두울 때 집 주변을 혼자 걸을 때 당신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①매우 안전하다, ②안전하다, ③안전하지 않다, ④매우 안전하지 않다’라는 응답으로 측정하였으며, ③과④로 응답한 사람들을 불안을 느끼는 사람으로 리코딩하여 분석하였음.
2) 위해 경험률은 “귀하나 가구원 중 최근 5년 동안(2011~현재) 강도나 신체적 위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란 질문에 대해 ‘①예’, ‘②아니오’의 응답으로 측정하였음.

출처: 우선희(2018, p.67)



[그림 1-3] 연령별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

주: 1)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은 “어두울 때 집 주변을 혼자 걸을 때 당신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①매우 안전하다, ②안전하다, ③안전하지 않다, ④매우 안전하지 않다’라는 응답으로 측정하였으며, ③과④로 응답한 사람들을 불안을 느끼는 사람으로 리코딩하여 분석하였음.

출처: 우선희(2018, p.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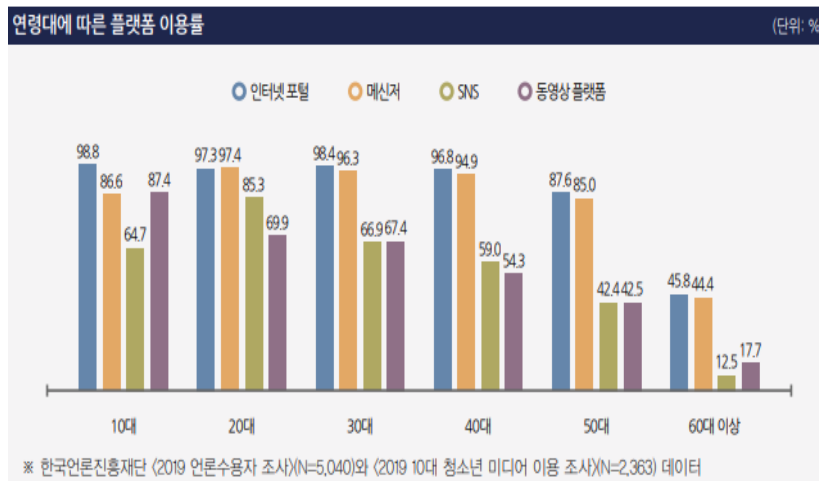
연령은 범죄 불안감을 야기하는 변인으로서 한국에서는 유효하지 않으며, 신체적 취약에 따른 불안보다 범죄피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더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은 지인이나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은 비노인층의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타 연령대보다 정보 접근성이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필터버블 효과’와 연관지어 설명될 수 있다(우선희 2018, p.79).

필터 버블 [Filter Bubble]

필터 버블(filter bubble)이란 사용자가 개인화 알고리즘에 의해 생기는 정보편식 현상으로 사용자가 제한된 주제의 제한된 정보만을 접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시민단체 무브 온(Move on)의 이사장인 Eli Pariser의 저서 생각 조종자들(The Filter Bubble : what the internet is hiding from you)에 처음 등장했으며, '사용자 견해 고립 현상', 'balkanization' 혹은 'global village'이라고도 불린다.

출처: 전준영 외(2018, p.369) 직접인용

한국 언론진흥재단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연령대가 낮을수록 디지털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률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 준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뉴스이용률을 살펴보면 30대 이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양정애 2020, p.2).



[그림 1~4] 연령대에 따른 플랫폼 이용률

출처: 양정애(2020, p.2)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검색엔진을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사건을 중점적으로 보도를 하게 되면 알고리즘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실제로 통계청(2020, 11월 18일 보도자료, p.37)에서 야간 보행이 불안한 이유에 대해 설문한 결과, 여성은 '신문, 뉴스 등에서 사건 사고를 접함'이 45.7%로 가장 많고, '인적이 드물', %, '가로등, CCTV 등 안전시설 부족'이 18.4%를 차지하였으며, 전 연령층이 미디어를 통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야간 보행의 안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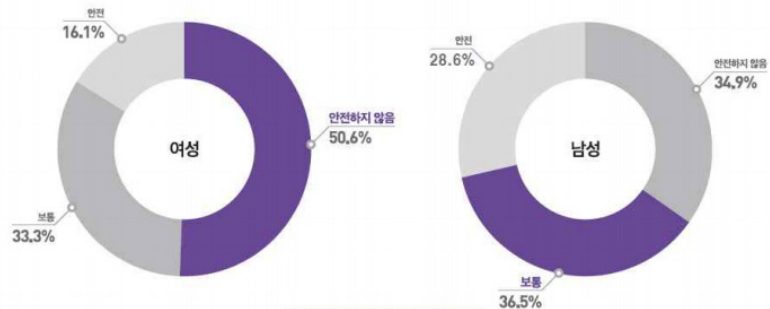
(단위: %)

	소계	신문뉴스등 에서 사건사고 접함	인적이 드물	가로등 CCTV등 안전시설 부족	치안시설 부족	우범지역 존재	기타
2020년	100.0	44.0	25.4	20.1	6.9	2.9	0.6
남자	100.0	38.7	21.9	25.3	9.3	4.1	0.7
여자	100.0	45.7	26.6	18.4	6.1	2.5	0.6
13~19세	100.0	43.1	29.1	19.8	5.1	2.1	0.8
20~29세	100.0	44.2	25.7	21.2	5.3	2.5	1.1
30~39세	100.0	44.0	23.9	21.2	7.7	2.6	0.5
40~49세	100.0	47.3	21.3	19.6	8.7	2.7	0.3
50~59세	100.0	43.0	26.0	21.2	5.9	3.4	0.5
60세이상	100.0	42.3	27.8	18.4	7.3	3.6	0.6

출처: 통계청(2020, 11월 18일 보도자료, p.38)

□ 특히 여성들의 범죄 두려움이 높은 수준

서울시에서 조사한 성인지 통계에서 범죄위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 34.9%, 여성은 50.6%로 남성보다 응답 비율이 약 15.7% 높게 나타났다(공주, 권진 2019, p.60). 또한 통계청에서 수행한 2020년 사회조사에서도 전체 요인¹⁾ 중 ‘범죄발생’을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 요인으로 응답한 비율이 여성이 16.8%, 남성이 9.6%로 나타났다(통계청 2020, 11월 18일 보도자료, p.36). 범죄 요인 항목만 살펴보면, 범죄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여성이 45.8%, 남성이 33.9%이며, 안전하다고 느끼는 응답자는 여성이 21.6%, 남성은 32.1%로 남성은 큰 차이가 없으나 여성은 24.2%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8, 11월 6일 보도자료, p.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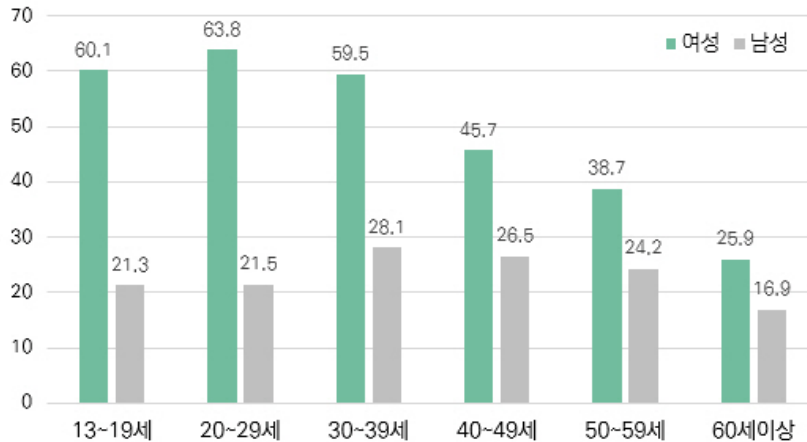


[그림 1-5] 서울 여성들의 범죄 두려움

출처: 공주, 권진(2019, p.60)

- 1) 국가안보, 식량안보, 먹거리, 자연재해, 화재, 건축물 및 시설물, 교통사고, 정보보안, 개인정보 유출, 범죄 등의 요인이 있다.

‘야간 보행에 대한 안전도’에서 야간보행 시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여성은 평균 46.1%, 남성은 23.1%로 약 2배의 차이를 보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에서 30대까지 여성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야간보행 두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40대 이후에도 여성들의 야간보행 두려움이 남성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림 1-6] 야간 보행 두려움

출처: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8, p.142)

□ 여성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관련 다양한 정책 수행

이러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전염성을 지니고 있는데, 자신이 겪었던 범죄관련 사건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이는 지역 내로 퍼져 거주하는 주민들의 두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Skogan 1986; 오봉욱 2016, p.10 재인용). 실체가 없는 막역한 두려움은 사람들의 삶의 질 저하, 공동체 활동 저하, 사회경제적 비용 증대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있어 이를 감소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들이 느끼는 범죄두려움은 상대적으로 크고, 강력범죄의 피해가 심각해지는 추세에 따라 여성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초기의 경우 범죄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시작된 여성안전정책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일상생활공간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빈번해짐에 따라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계획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성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자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범죄 두려움에 기반한 사업 효과성 검증 필요

범죄예방관련 사업의 주요 목표는 범죄 발생 건수 및 범죄 두려움 감소이다. 범죄 발생건수 감소의 경우, 전·후 범죄 건수 차이 분석, 회귀분석을 활용한 효과성 분석, 범죄전이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WDQ 분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이 되어 왔다. 범죄 두려움의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범죄 두려움, 지역 만족도, 사업 만족도 등을 사업 전·후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종종 범죄 두려움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 실제 범죄피해에 비해 범죄두려움이 높고, 그 두려움의 정도는 개인 특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국민들의 범죄두려움 감소를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는 범죄예방관련 사업에 대해서 ‘범죄 두려움’을 집중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첫째, 범죄두려움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고찰하고, 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한 틀을 구축하고자 한다. 어떤 요인들이 범죄두려움을 설명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상지의 범죄두려움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 대상지의 범죄두려움 변화를 파악하고, 효과성을 검증하고자한다.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사람들의 범죄두려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사전에 비해 사후에 어떻게 범죄두려움이 변화했는지 파악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범죄예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성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업의 실효성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추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시·공간적 범위

- 2020년 사업 전·후, 여성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 대상지 A시 B구 C동

□ 분석 대상

- 여성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 대상지 지역 주민들의 범죄 두려움

□ 내용적 범위

- 범죄두려움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효과성 분석 검증

2) 연구의 방법

□ 문헌 연구

- 범죄두려움관련 선행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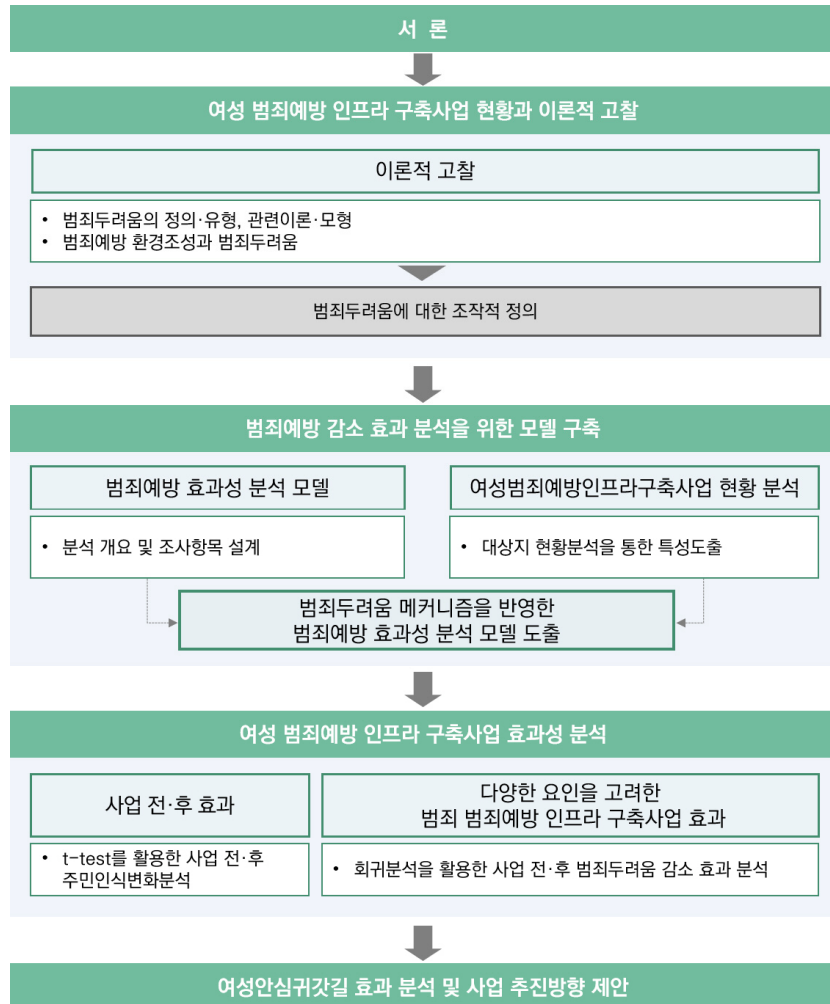
□ 현장조사

- 현재 사업을 수행하는 대상지에 대한 사업 진행 현황 파악

□ 설문조사

- 대상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 전·후 범죄두려움 변화, 범죄피해 경험 변화, 지역애착도 변화를 측정하는 등 정량적 범죄예방 효과 분석

3) 연구의 흐름



[그림 1-7] 연구의 흐름

출처: 연구진 작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검토

□ 시간적 범위를 고려한 사업 효과성 분석 연구

범죄 두려움을 고려한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 수행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사업 전·후 분석을 비교한 연구와 사업 후 일정한 기간을 두고 분석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사업 전·후 분석을 통해 사업 대상지의 범죄 두려움 감소를 수행한 연구인 박경래 외(2013)는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및 공진중학교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범죄두려움, 동네환경에 대한 인식, 범죄예방디자인 시설물 인식,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주민 설문조사 및 현장분석을 통해 사업 전·후 거주지역 간(소금길/비소금길)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 사업 이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동네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박영주 외(2019)는 K대학가를 중심으로 실시한 대구시 범죄예방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범죄예방사업 시행 후의 체감안전도, 무질서, 범죄두려움, 범죄예방활동 인식은 시행 전 대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반면, 지역유대 및 비공식적 통제는 사업 전·후의 큰 변화는 없었다.

다음으로 사업 완료 일정기간동안 사업효과의 지속성을 분석한 연구인Kushmuk & Whitemore(1981)는 1974~1978년 동안 진행된 포틀랜드시의 CPTED 사업의 재평가를 위해 Union Avenue Corridor(UAC)에 위치한 상업지역의 CPTED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범죄발생수준을 분석한 결과, 강도를 제외한 다른 범죄발생 수준은 낮아졌고 포틀랜드 전체에 비해 UAC지역의 상업강도는 3.9%에서 2.5% 감소하였다. 사회적 응집과 범죄불안감은 큰 변화가 없었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제상황이 악화되었다는 다수의 응답이 있었다.

유광흠 외(2017)는 CPTED사업의 시행 전, 준공 직후, 준공 약 1년 후 등 3차례의 기간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CPTED사업이 거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내용 결과, 사업 시행 전에 비해 준공 직후나 준공 약1년 후에 범죄피해별 불안감은 낮아졌다. 특히 범죄불안감은 사업 시행 전 그 다음으로 준공 직후, 준공 약 1년 후 순으로 낮아졌다. 이를 통해 CPTED 사업은 단기간에만 효과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 범죄 불안감 감소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서승연 외(2018)는 정성·정량적(설문조사, 인터뷰 조사, 유동인구 조사, 범죄 발생건수 및 범죄지도, 범죄 예방비용 분석)을 통한 CPTED 적용 효과의 시계열적 실증 분석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비용 절감효과를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범죄두려움, 이웃과의 관계, 동네만족도, 동네애착 수준, 사회적 활동, 지역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었다. 사업 이후 주·야간 유동인구가 증가했으며 범죄 발생건수는 2014년을 기준으로 2015년 13.3%, 2016년 42.2% 감소하였다. 반면, 범죄두려움 및 동네 애착도는 사업 이후 감소하다가 완료 1년 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범죄두려움 감소 측면에서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표 1-2] 시간적 범위를 고려한 사업 효과성 분석 연구

저자(년도)	목적	방법	주요 내용
Kushmuk, J. & Whittemore, S. L. (1981)	· 1974~78년 포틀랜드시의 UAC 상업지역의 CPTED 효과분석	설문조사 t-검정	· 사회적 응집: 큰 변화는 없으나 이웃끼리 범죄에 대해 논의하는 비율감소 · 범죄수준: 강도피해자 제외한 다른 범죄수치 감소, 포틀랜드 전체에 비해 UAC의 상업 강도는 1.4% 감소(보안설비, 가로등의 효과) · 범죄불안감: 큰 변화 없음
박경래 외 (2013)	·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범죄예방디자인 프로젝트’ 시범 사업의 사업 효과성 분석	설문조사 t-검정 현장분석	· 주민 설문조사 결과, 사업 전·후 거주 지역 간 (소금길/비소금길)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검증 · 사업 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전반적으로 감소, 동네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
유광흠 외 (2017)	· CPTED 사업이 진행된 3곳을 대상으로 시행 전, 준공 직후, 준공 약 1년 후의 효과성 분석	설문조사 Scheff'e 사후검정방법 · 분산분석	· 사업 시행 전에 비해 준공 직후, 준공 약 1년 후 범죄피해별 불안감이 낮아졌고, 사업 시행 전)준공직후)준공 약 1년 후 순으로 범죄불안감이 낮아짐 · 일정기간이 경과해도 CPTED사업은 대상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침을 밝힘
서승연 (2018)	· CPTED사업이 진행된 대상지 1곳을 중심으로 정성·정량적 효과 분석 및 범죄예방 비용절감 효과 추정	설문조사 t-검정 일원분산분석	· CPTED 사업은 동네무질서, 범죄두려움, 동네만족도, 동네애착수준에 영향을 줌 · 사업 후 주·야간 유동인구가 증가 했으며 범죄발생건수는 2014년 대비 2015년 13.3%, 2016년 42.2% 감소 · 범죄두려움 및 동네 애착도는 사업 후 감소하다 완료 1년 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시사
박영주 외 (2019)	· K대학가를 중심으로 대구시 CPTED 사업의 효과분석	설문조사 빈도분석 t-검정	· CPTED 사업 시행 후 안전체감도, 무질서, 범죄두려움, 경찰에 대한 인식변화는 시행 전에 비해 긍정적 방향으로 개선됨 · 지역유대 및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사업 전· 후 크게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 연구진 작성

□ CPTED와 범죄두려움 간의 관계 분석 연구

CPTED와 범죄두려움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사업의 개별 요소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와 사업 효과 분석에 있어 범죄두려움의 이론을 고려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CPTED사업의 효과성을 연구한 홍동진(2008)은 준공업시설에 면한 아파트단지와 준공업지역 내 주택단지 중 타 주택단지에 접한 공동주택 단지 간의 물리적 차이에 따른 범죄환경예방설계 항목에 관한 만족도를 파악하였다. 감시기능 강화가 범죄불안감 해소를 위한 효과적 방법임을 제시하면서, 향후 공동주택 설계 시 감시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Natural surveillance, Natural access control, Maintenance&Management, Activity support를 고려할 것을 강조하였다.

최현식(2008)은 CPTED가 공동주택 거주민의 범죄안전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효율적 범죄예방 방안을 제안하였다. 공동주택에 CPTED가 적용된 수준에 따라 High Level(H.L), Low Level(L.L)로 구분하여 조절변수로 설정하고, CPTED의 중요도와 만족도 및 범죄 경험정도와 범죄 안전인식 간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였다. 모든 공동주택 주민집단(H.L집단, L.L집단)은 CPTED의 중요도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였으며, CPTED의 설계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거주민의 범죄 안전인식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CPTED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H.L 집단의 경우를 분석한 결과, 영향적 관계에 있어 CPTED 각각의 구성요소와 범죄유형별 안전인식은 상대적으로 많은 긍정적 관계들이 관찰되었다.

박영주(2010)는 범죄피해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CPTED 실행전략 5가지 요소가 긍정적으로 작용할수록 범죄피해와 범죄두려움이 적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이 범죄피해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대상지 3곳의 거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작성된 조사문항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별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주민들의 CPTED에 대한 인식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다중회귀분석도 실시하였다. CPTED 실행전략의 5가지 가운데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은 '자연적 감시와 유지관리'이며, '유지관리'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여 주거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CPTED 실행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유여경(2017)은 CPTED 계획요소, 설계요소별 중요도 분석(AHP 분석), 공간분석 및 범죄발생의 GIS분석, 사업시행 후 거주민 인식조사를 통해 범죄예방 환경 조성사업 효과를 논하였다. 계획요소 적용현황 분석을 통해 자연감시 증대 등 효과성 높은 계획요소 도출하였다. GIS 분석 결과, 사업대상지를 중심으로 25m 반경 내에서 범죄예방환경설계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에 범죄발생 밀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박인용(2013)은 담장허물기 시행여부에 따른 범죄예방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담장이 없는 신도시의 거주민을 대상으로 범죄안전의식의 효과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기술통계,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통한 척도 검증, 이원변량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 t-검정, Scheff'e사후검증방법, 회귀분석, 단순상관관계분석, 빈도분석등 다양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담장 허물기 사업은 범죄안전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유지관리 순으로 범죄예방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 자연적 감시에서는 '담장제거', 접근통제에서는 'CCTV설치', 영역성에서는 '울타리설치', 유지관리에서는 '쓰레기 없는 골목'이 가장 큰 범죄예방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인병(2015)은 안심마을 시범사업 시행으로 인한 근린환경의 변화가 대상지의 범죄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거주민 대상으로 사업 전·후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주민 설문조사 결과, 시범사업 이후에 CPTED 측면에서 범죄두려움은 감소하였고 근린환경의 질은 높아졌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사업 후 CCTV, 보안등, 빈집철거, 골목길 정비 등으로 근린환경의 질 향상 및 범죄두려움 감소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범죄두려움의 이론을 바탕으로 CPTED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윤우석(2015b)은 2차례에 걸쳐 거주민 대상으로 범죄발생 추세의 인식, 범죄피해 가능성 인식, 범죄두려움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은 범죄발생 추세를 감소시키고 범죄두려움을 개선하거나 특정 범죄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성가설, 사회통합가설, 무질서 가설, 경찰가설 등 기존 범죄두려움에 대한 가설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무질서 가설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으며 경찰가설도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김영제(2007)은 CPTED의 물리적·사회적 요소가 주민의 범죄 두려움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8개 지역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 및 경로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CPTED의 물리적 요소는 주민들의 범죄 두려

움을 감소에 영향을 주었으나 사회적 요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특히 물리적 요소가 사회적 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범죄두려움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함주일(2010)은 공동주택의 커뮤니티시설을 대상으로 방범환경설계가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에 범죄예방 환경설계가 적용된 서울시 8곳의 거주민 대상으로 상관분석, t-검정, ANOVA, 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범죄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와 주거만족도의 차이는 커뮤니티시설 방범환경시스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원, 벤치 및 표지판 설치에 대한 방범환경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표 1-3] CPTED와 범죄두려움간의 관계 분석 연구

저자 (년도)	목적	방법	주요 내용
최현식 (2008)	CPTED 설계가 공동주택 주민의 범죄 안전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효율적 범죄예방 수단으로 CPTED 방안을 제안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 two-way ANOVA, 단순·다중 회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에 CPTED가 적용된 수준에 따라, CPTED의 중요도·만족도 및 집단별 범죄경험정도과 범죄안전 인식 간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파악 · 모든 공동주택 주민집단 (H.L집단, L.L집단) CPTED 중요도에 높은 가치를 부여함 · CPTED설계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에 긍정적 효과를 보여줌 · CPTED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H.L집단의 경우 CPTED 개별 구성요소와 범죄 유형별 안전인식 간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보임
박영주 (2010)	범죄피해와 범죄두려움 에 영향을 주는 CPTED 의 실행 전략 제시	다중회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적 감시’와 ‘유지관리’는 범죄피해, ‘유지관리’는 범죄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유여경 (2017)	CPTED 계획요소, 공간분석 및 범죄발생 GIS분석, 인식조사를 통한 CPTED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제안	AHP분석, 공간분석 (VAE, GIS분석),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요소 적용현황 분석을 통해 자연감시 증대 등 효과성 높은 계획요소를 도출 · GIS 분석 결과, 25m 내 범죄예방환경설계 효과를 확인해 핫스팟 중심으로 사업 진행 시 효과 제고가 가능
박인용 (2013)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인한 CPTED 요소별 범죄안전의식 효과성 연구	설문조사 기술통계 크론바하 알파계수 one-way ANOVA, two-way ANOVA, t-test Scheff'e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허물기 사업은 범죄안전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유지관리 순으로 범죄예방에 큰 영향을 줌 · 자연적 감시 항목에서는 ‘담장제거’, 접근통제에서는 ‘CCTV설치’, 영역성에서는 ‘울타리설치’, 유지관리에서는 ‘쓰레기 없는 골목’이 가장 큰 범죄예방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됨

저자 (년도)	목적	방법	주요 내용
		후검증방법, 회귀분석, 단순상관관계분석, 빈도분석	
채인병 (2015)	안심마을 시범사업으로 인한 근린환경의 변화가 동네 범죄안전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t-검정, 다중회귀분석 심층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시범사업 이후에 CPTED 측면의 근린환경의 질이 높아지고 범죄두려움은 감소함 · 심층인터뷰를 통해 사업 후 CCTV, 보안등, 골목길 정비, 빈집 철거 등으로 인해 근린환경의 질은 향상, 범죄두려움은 감소함 · 근린환경의 변화(통학로 및 골목길 정비, CCTV·보안등 설치, 빈집철거)가 범죄두려움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줌
윤우석 (2015b)	CPTED사업이 범죄발생추세 인식, 범죄피해가능성인식, 범죄두려움개선에 주는 영향분석	코호트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TED 사업은 범죄발생추세를 감소시키고, 범죄두려움을 개선하거나 특정 범죄피해 가능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취약성, 사회통합, 무질서, 경찰가설을 고려한 회귀모형 검증 결과, 범죄발생 추세와 범죄두려움을 유의미하게 개선함 · 범죄두려움 설명가설 중 무질서 가설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며, 경찰가설도 유의미한 영향을 줌 · 범죄관련 인식 중 경찰의 공식적 통제, 범죄두려움 인식 중 경찰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 인구학적변인 중 경제적수준이 범죄안전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침
김영제 (2007)	CPTED의 물리적·사회적 요소가 주민의 범죄두려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	경로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TED의 물리적 요소는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반면 사회적 요소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함 · 물리적 요소가 사회적 요소(매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는 범죄두려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함주일 (2010)	공동주택의 커뮤니티 시설을 대상으로 한 방범환경설계가 주민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상관분석, t-검정, ANOVA, 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시설 방범환경 시스템은 범죄에 대한 안전성(매개)에 영향을 미치고, 범죄에 대한 안전성은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침 · 이는 커뮤니티시설의 방범전략이 범죄를 방지하고, 범죄불안감을 감소함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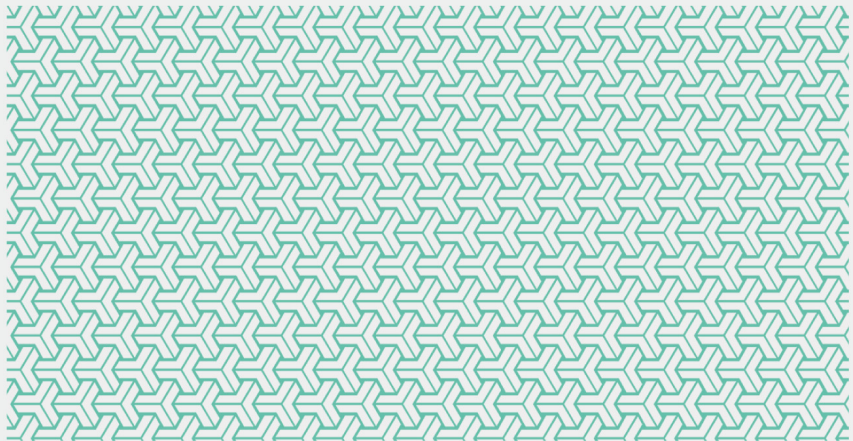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CPTED와 범죄두려움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주로 CPTED 사업 요소를 세분화하여 CPTED 원리가 범죄두려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일부 CPTED 원리와 범죄두려움 이론을 연관시켜 분석을 한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범죄 두려움과 CPTED의 관계 규명, 범죄두려움을 파악했다는 점은 의의가 있으나 범죄두려움을 유형화하고, 이에 대한 사업 전·후 효과성을 분석하지 않은 점이 관련 연구분야의 개선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범죄예방사업을 실시한 대상지의 효과를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는 CPTED 계획요소 중 어떤 항목이 범죄예방 효과성을 높이는지,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CCTV, 비상벨, 조명 등의 설치로 범죄예방 효과성은 검증되었으나 사업 후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부족하여 장기적으로 범죄두려움은 증가하고 효과성은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범죄예방사업 수행시 물리적인 개선과 더불어 개인 및 지역적 차원에서 개선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정책의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 점에서, 또한 연구와 더불어 정책에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수행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제2장 이론적 고찰



1. 범죄두려움의 정의 및 유형
2. 범죄두려움 관련 주요 이론

1. 범죄두려움의 정의 및 유형

1) 범죄두려움의 정의

□ 범죄두려움의 정의

범죄두려움이란 범죄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이라고 정의되나 그 실체가 모호하고 형체가 없으므로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의미하는 범죄두려움은 ‘자신 또는 가족이 범죄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위험인식 혹은 범죄 자체에 대한 우려’(Conklin, 1975; Baumer, 1985; 강지현, 2019, p.27 재인용), ‘타인에 대한 불신, 걱정, 공포 등을 비롯하여 범죄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다양한 정서적 상태, 태도, 인식’(Warr, 2000; 강지현, 2019, p.27 재인용)으로도 정의된다. 최근에는 범죄두려움을 범죄위험 인식 및 인지된 위험과 구별하여 ‘범죄피해에 대한 부정적 감정반응’으로 정의되고 있다(Ferraro 1995; 강지현, 2019, p.27 재인용). 기존의 논의된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범죄두려움을 ‘**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인지하는 위험**’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표 2-1] 범죄두려움 개념

저자	내용
Garofalo(1981)	범죄에 대한 위험 또는 범죄발생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발현되는 특정적 감정 반응으로 정의
Conklin(1975) & Baumer(1985)	자신 또는 가족이 범죄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위험인식 혹은 범죄 자체에 대한 우려로 정의
Ferraro & LadGrange (1987)	범죄피해 발생에 대한 가능성 및 평가는 범죄의 위험인식으로 분류되며, 이는 범죄두려움과 구분하여 정의
Ferraro(1995)	인지된 위험 혹은 범죄위험 인식과 범죄두려움을 구별하여 ‘범죄피해에 대한 부정적 감정반응’으로 정의
Warr(2000)	타인에 대한 불신, 걱정, 공포 등을 비롯하여 범죄발생과 연관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서적 상태, 태도, 인식으로 정의
Gabriel & Greve(2003)	개인적 관점에서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라는 개인적 두려움을 범죄두려움으로 정의

출처: 강지현(2019, pp.27-28 재인용), 이병국(2018, p.49 재인용)을 참고하여 작성

2) 범죄두려움 유형

□ 범죄두려움 유형

범죄두려움의 유형화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정립되어 왔다. 범죄두려움의 유형화가 필요한 이유는 범죄두려움 측정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다. Ferraro & Grange(1987)은 여러 학자들의 범죄두려움 유형화에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범죄두려움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우선 범죄의 두려움은 인식유형과 준거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크게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가 혹은 나 외 타인의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가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가치에 해당하는 질문으로 단순 두려움인지 혹은 특정 범죄에 피해자가 될 것이라 인식하는 두려움인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 두려움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일반적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 두려움은 범죄의 유형을 특정화하지 않고 나 혹은 타인의 위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의미한다. 전국범죄피해자조사 설문에서는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는가?’로 해당 두려움을 측정한다. 구체적 두려움은 나 혹은 타인이 특정 범죄유형에 대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의미한다.

[표 2-2] 범죄 두려움 유형

		인식유형		
		인지적	정서적	
		평가(판단)	가치	감정
준거기준	일반적	다른 사람의 위험: 범죄 혹은 안전에 대한 평가	다른 사람들이 입을 범죄에 대한 관심	다른 사람들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개인적	자신의 위험: 자신의 안전	자신이 입을 범죄에 대한 관심: 개인적 참을성	자신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출처: Ferraro & Grange(1987, p.78); 한민경(2019, p.36 재인용)

2. 범죄두려움 관련 주요 이론

범죄두려움과 관련된 이론은 범죄두려움이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야기된다는 이론에서부터 개인을 둘러싼 물리적·사회적 환경에 의한 것, 그리고 이 둘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이론으로 발전되었다. 본 절에서는 범죄두려움과 관련된 주요 이론을 살펴보고, 여성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효과성분석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1) 개인적 차원에 대한 논의

범죄 두려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에게 범죄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범죄발생의 요인과 유사하게 범죄두려움이 개인의 경험 혹은 특성에 의해 야기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검증해왔다. 범죄두려움에 대한 개인차원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있었으나 개인의 범죄피해경험과 범죄두려움 간의 관계에 대한 주장이 대표적인 논의가 된다. 하지만 이 주장에서는 범죄 두려움과 범죄피해 양상이 일치하지 않는지, 범죄발생건수보다 더 광범위하게 범죄두려움이 확산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다 많은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심리적인 요인, 정보네트워크와 범죄두려움 간의 관계에 대한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이 대표적인 두 가지 이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범죄피해경험과 범죄두려움 간의 관계

범죄두려움의 원인에 대한 연구의 초기에는 실제 범죄피해의 경험과 범죄 발생 가능성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즉, 사람들마다 범죄피해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정도가 다른가를 이해하는데 개인마다 범죄피해경험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여 관계를 입증하려했다. 연구의 초창기만 해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이 범죄에 대한 인지를 유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어왔다. 이러한 범죄피해 경험이론은 범죄피해의 위험성에 대해 개인의 평가를 기반으로 개인들의 특성들과 범죄두려움 간의 관계를 주장해왔다.

Skogan(1986)은 피해자 조사를 통해 강간이나 강도, 절도피해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주거지역의 비슷한 장소를 경험하는데 있어서 더 불안하게 느끼는 것을 밝혔다. 이 연구와는 달리 개인의 범죄피해경험이 구체적으로 두려움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과, 범죄피해경험 및 가능성과 범죄두려움이 정비례관계가 아님을 밝힌 연구 등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

치하지 않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는 범죄피해경험과 범죄발생가능성이 명확한 양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범죄피해경험이 없으나 높은 범죄두려움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대한 설명은 불가하다는 한계를 발견하였다. 일반적으로 여성이나 노인은 젊은 남성에게 비해 범죄피해율과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더 높게 나타난다는 주장(Warr, 1984; Ferraro, 1996; 김연수 2010, p.24 재인용)은 범죄피해 경험만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 범죄취약성과 범죄두려움 간의 관계

실제 범죄 피해경험이나 범죄발생가능성과 상관없이 높은 범죄두려움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범죄피해-범죄두려움 관계를 보완하는 '취약성 이론'이 등장하였다. 이 이론의 주장은 사람들은 자신을 잠재적 피해자로 인지할 때, 더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이외의 요인에 의해 범죄피해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은 범죄두려움으로 발전한다.

'취약성'이라는 것은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와 범죄를 포함하는 이러한 위험으로 인한 피해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로, 크게 개인이나 계층 및 정보 네트워크에 따라 취약성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이나 계층의 취약성은 다시 신체적·사회적·환경적 취약성으로 구분된다(Killias 1990, p. 99). 신체적 취약성은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 아동, 노인들이 범죄두려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적·환경적 취약성은 인구·사회경제학적으로 소수에 속하거나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더 큰 두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인의 심적 민감성이 범죄두려움을 느끼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개인의 심적 요인 외에 취약성 이론에서 주요하게 보는 요인은 '간접적인 피해경험'이다. 앞서 취약성의 요인인 '정보네트워크'가 이것을 의미한다. 실제 범죄피해를 겪은 사람들이 범죄 두려움이 크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실제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범죄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피해경험은 적으나 범죄두려움은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난 것에도 알 수 있듯이 반드시 실제 범죄피해경험만이 범죄두려움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하기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간접피해가설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죄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신문기사, TV뉴스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접하는 범죄피해 경험이 실제범죄피해보다 범죄두려움의 요인이 될 수 있다.

2) 지역적 차원에 대한 논의

범죄발생이 개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는 환경범죄학이론이 등장하였듯이, 범죄두려움에 대한 연구동향도 개인적 특성에서 지역의 범죄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물리적·사회적 공간으로 확대해갔다.

□ 사회생태학관점에서의 범죄두려움에 대한 고찰

사회생태학 이론은 1920년대 시카고의 도시사회학으로부터 파생되었다. 범죄 사회학적 연구의 초점은 개인적 특성에서 사회적·지역적 환경으로 옮겨왔으며, 이들은 사회적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으로 지역의 열악한 환경이 범죄를 발생·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장안식 2011, p.26).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생태학자들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효과가 사회·경제적,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Shaw & McKay(1942)는 각 지역마다 범죄발생의 차이가 나는 일차적인 원인을 지역의 열악한 특성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지역유동성, 인종적 이질성) 찾았다. 즉, 경제적 빈곤, 주거 불안정, 결혼 가정, 다양한 인종이 거주하는 지역의 급격한 인구 변화가 사회통제 구조를 붕괴시킨다고 보았다. 이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사람들은 범죄두려움을 상대적으로 많이 느끼게 될 것이며, 지역 내 통합도가 범죄발생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 사회적 통합과 범죄두려움

1980년대 들어 사회해체이론은 집합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신사회해체이론(집합효율성이론)으로 발전하였다. 기존 사회해체이론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지역 내 유대나 사회적 네트워크가 해당지역의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통제장치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Sampson과 동료 학자들은 그 대안으로 지역주민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결속력과 지역의 사회적 통제를 연결하고자 집합효율성 이론을 제시하였다(Sampson et al., 1997; Sampson et al., 1999; Morenoff, Sampson & Raudenbush, 2001; 박성훈, 2011, pp.333-334 재인용). 집합효율성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유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지역의 비공식적 통제에 대한 기대감과 지역주민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생겨나는 지역의 응집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Shaw & McKay(1942)가 말하는 공식적인 사회조직에 의한 사회통제에서 지역사회

의 신뢰라는 개념으로 확대한 것으로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에 사회적 통제집단 역할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역의 커뮤니티가 붕괴되어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느끼면 지역주민의 범죄불안감은 증가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Bursik & Grasmick(1993)는 지역의 통합도가 범죄에 대한 통제력으로 작용하여 범죄의 발생가능성을 억제한다고 주장하였으며(박성훈 2011, p.333 재인용), Silver & Miller(2004)는 비공식적 통제가 지역 구성원들이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범죄나 일탈행위를 예방하는 것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장안식 2011, p.34 재인용). 이처럼 지역의 통합도의 정도를 집단적 통제능력, 집합 효율성, 비공식적 사회통제, 지역사회의 유대 등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 무질서와 범죄두려움

사회생태학관점에서 범죄두려움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회의 쇠퇴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해체와 사회적·물리적 무질서와의 관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Skogan(1990)은 무질서가 지역사회의 결속력과 통제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더 심각한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무질서한 행위와 더러운 환경을 그대로 방치하면 주민들은 공공장소를 이용하지 않게 되고, 범죄발생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며, 결과적으로 지역의 사회적 통제력이 약화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지역의 범죄자도 해당 지역의 무질서와 범죄유인으로 작용하여 절도, 강도, 폭력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게 된다. 결국 무질서의 증가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증가, 지역사회통제약화, 범죄발생이라는 순차적 연결고리의 시발점이다(박성훈, 김준호 2012, p.265 재인용).

개인의 특성에 주목했던 이전의 이론들과는 달리 무질서나 사회통합수준 등과 같은 지역사회의 특성들이 개개인이 느끼는 범죄두려움 수준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즉, 개인의 특성과 별개로 범죄의 두려움은 지역적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무질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인지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또한 무질서가 범죄를 유발하는가의 여부를 떠나서 사람들은 무질서한 환경이 범죄를 연상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오봉욱 2016, pp.27-32).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무질서는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물리적 무질서는 거주하는 지역 환경이 관리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

며 무단 쓰레기 배출로 인해 더러워진 가로, 벽면의 낙서 등을 포함한다. 사회적 무질서는 비행 청소년, 취객 등 위험행동을 야기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 지역사회경찰활동 이론

지역사회통제모델은 범죄통제 주체의 공권력에 따라 공식통제와 비공식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인 경찰활동이 범인검거를 통한 법집행에 집중했다면, 공식적 사회통제모델로서의 지역 경찰활동은 범죄예방을 위한 범인검거 이외에도 지역의 무질서 해소, 지역주민의 삶 향상 및 범죄두려움 감소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Skogan & Harnett 1997; 오봉욱 2016, p.40 재인용). Skogan(1990)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이 지역주민의 경찰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지역주민의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였다(오봉욱 2016, p.41 재인용). 이는 경찰활동 자체가 지역주민들의 가디언 역할을 하고, 그들에게 안전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범죄두려움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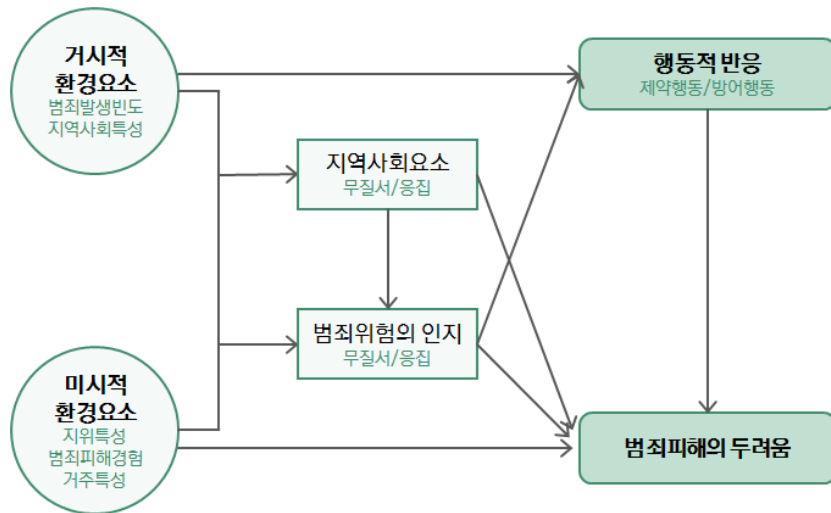
3) 개인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에 대한 통합적 접근

□ 위험해석이론

Ferraro(1995)는 앞서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과 거주지역의 특성을 통합하여 위험해석모델(Risk interpretation model)을 제시하였다. 그는 범죄피해의 두려움과 관련된 미시적·거시적 요인, 범죄위험의 인지, 범죄예방을 위한 행동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두려움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Ferraro(1995)의 연구에서는 기존연구들과 달리 범죄두려움과 범죄위험의 인지개념을 분리하여 범죄두려움의 영향요인을 보여주었다. 범죄두려움은 범죄에 대한 걱정 및 불안 등의 정서적인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논의에서는 범죄두려움을 측정함에 있어, 범죄피해의 위험에 대한 인지와 두 가지 개념을 혼용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험해석모델은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을 따르고 있으며, 개인은 자신의 피해경험이나 특성,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 비추어 본인의 범죄 위험가능성을 인지하고, 이것이 곧 개인의 범죄 두려움의 정도로 연결된다는 것이다(이성식 2000, p.78). 이러한 이유로 Ferraro(1995)는 범죄 두려움 외에도 범죄피해 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요인들로 개인의 범죄피해경험,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 지역사회의 물리적 특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역의 무질

서와 집합효율성을 개인의 인지와 해석에 기초한 무질서와 집합효율성으로 간주하고 모형을 구축하였다. 즉, 그는 지역의 객관적 특성보다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 범죄피해에 대한 개인의 피해위험인지라고 강조하였다(신의기 외 2014; 송영남 2016, p.31 재인용). 이와 동시에 개인의 범죄피해위험인지는 개인적 특성, 범죄에 대한 피해경험 여부, 지역의무질서,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 집합효율성, 지역사회경찰활동 등 지역수준의 요인과 개인수준의 요인들을 연계하여 범죄두려움과 관련된 이론을 구축하였다.(송영남, 2016, p.31)



[그림 2-1] 위험해석모델

출처: Ferraro(1995, p.18); 송영남(2016, p.32) 재인용

□ 환경특성과 범죄두려움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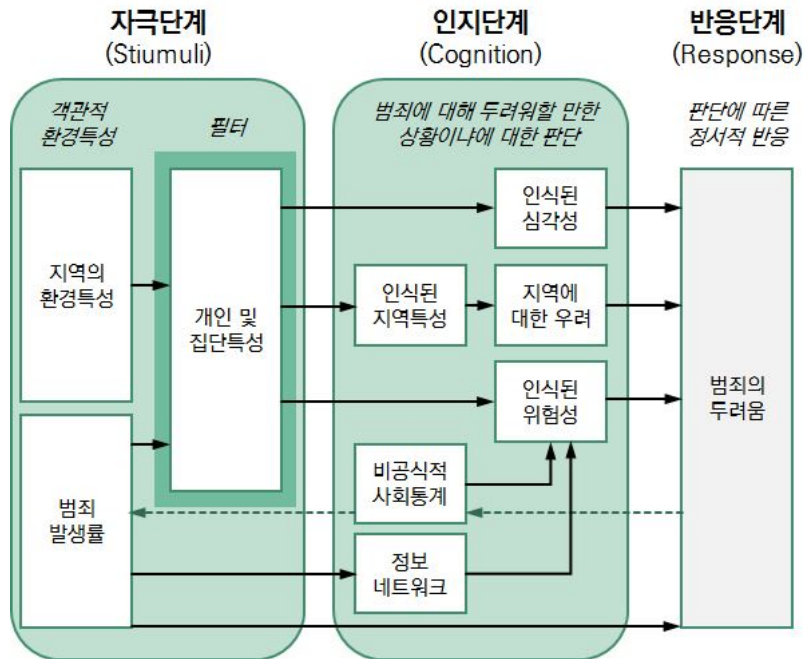
앞서 개인 혹은 집단의 심리·사회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범죄두려움을 설명한 이론들을 설명했다면, 물리적인 측면을 강조한 모델도 존재한다.

방어공간이론은 건축학적 관점에서 자연적 감시, 영역성 강화, 이미지 및 입지조건 등 4가지 디자인 요소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효과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이론은 사회적 변인을 고려하지 않고, 물리적 요인에 한정하여 범죄예방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국내연구는 방어 공간적 접근의 연구가 대부분이며, 범죄관련 변수를(범죄발생률, 범죄두려움) 종속변수로, 물리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관리특성을 독립변수로 도입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 환경특성과 범죄두려움 간의 연관성을 매개변수로 도입함으로써 초창기 연구가 가졌던 한계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범죄발생률과 범죄두려움을 같은 종속변수로 취급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된 변수로 취급하고 있는데, 범죄의 두려움은 인구·사회·경제적 요인과 물리적 요인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적 관계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이경훈(1998)은 환경특성과 개인 및 집단 특성 간의 상호작용, 환경특성에 대한 인지과정을 거친 범죄의 두려움의 관계에 대한 모델을 제안했다. 즉, 환경적 특성이 범죄두려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이론과 달리 지역의 환경특성과 범죄발생률에 대해 개인 및 집단성격에 따라 인지단계를 거치면서 범죄두려움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범죄의 두려움을 특정지역의 범죄발생률과 환경특성을 개인 혹은 집단이 어떻게 평가·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로 도출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범죄발생률, 환경특성과 개인 혹은 집단 특성 간의 상호작용을 전제하고 있다. 여기에서 개인 혹은 집단의 특성은 성별, 연령, 가치, 생활양식, 경제수준, 범죄피해 경험 등으로 환경특성과 상호작용하여 환경특성이 상황에 따라 중요도가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필터이다. 필터와 환경특성과의 상호작용은 범죄두려움 대상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모델에서 범죄 두려움을 야기하는 인식적 요소로 심각성, 범죄의 위험성, 지역에 대한 우려 등이 있다. 이 중 인지 과정에서 인식된 위험성은 두려움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자신에게 범죄피해 발생가능성이 있는지 범죄에 대해 두려워할 상황인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준다. 마지막 반

2) 이경훈(1998), 환경특성과 범죄의 두려움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모델, 대한건축학회, 14(12). pp.23-30를 참고하여 작성

응단계에서는 범죄두려움도 다른 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증가된 범죄두려움은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위축시켜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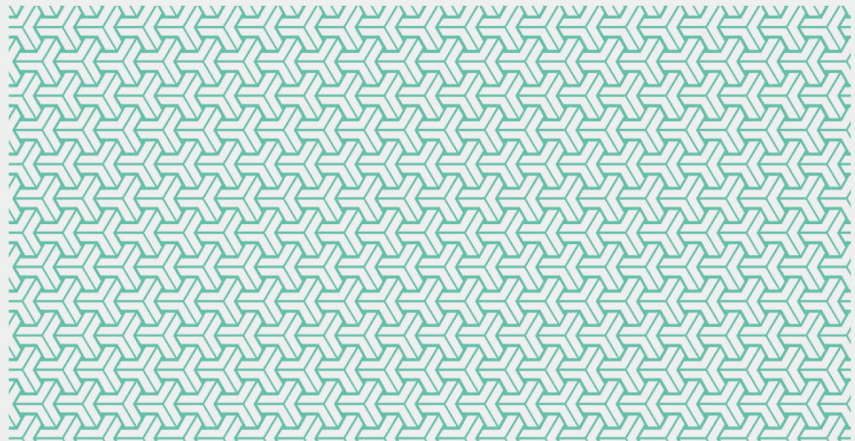
[그림 2-2] 제한된 환경특성과 범죄의 두려움간의 관계에 대한 모델

출처: 이경훈 (1998, p.29) 직접인용

지금까지 범죄두려움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은 범죄두려움과 개별 요인들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범죄두려움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하나의 요인보다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범죄두려움에 대한 분석을 해야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취약성 이론과 지역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무질서 이론, 사회통합 이론, 지역경찰활동이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두려움을 설명하는 이론을 파악하였다.

제 3장에서는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분석에 활용된 요인들을 어떻게 측정하고 구축했는지 설명하고, 본 연구의 사례 대상지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제3장 범죄예방 효과 분석 모델 구축



1. 범죄예방 효과성 분석 모델
2. 효과성 분석 사업 및 대상

1. 범죄예방 효과성 분석 모델

1) 연구 모형 설정

본 연구는 여성범죄예방인프라구축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업 전·후에 변화되는 사람들의 범죄두려움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또한 향후 사업효과 지속성을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업 전·후 대상지 주민들의 범죄두려움의 변화 분석과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이를 위해 여성범죄예방인프라구축사업을 수행한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한다.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t-test를 활용하여 사업 전·후 범죄두려움 감소를 파악하고, 실제 범죄두려움을 설명하는 요인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고자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2) 효과성 분석을 위한 변수 설정

① 연구 자료

□ 설문조사지 항목 구성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범죄두려움과 CPTED 사업효과성 분석 연구들을 검토하여 분석에 활용한 변수 및 설문항목들을 살펴보았다. 총 25개 연구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지 구성 항목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 환경에 대한 인식’, ‘범죄 피해에 대한 인식’, ‘범죄에 대한 두려움’, ‘이웃관계 및 동네 사람에 대한 인식’, ‘범죄예방 활동’ 등 [표 3-1]과 같은 설문조사 항목을 구축하였다. [표 3-2]는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활용한 변수들을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요인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공식적 통제 변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응집력에 관하여 지역사회 유대, 교류수준, 친밀도, 참여의식, 정주의식과 같은 변인에 대해 포괄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유대, 교류수준, 친밀도 등은 공통적으로 주민들 간의 유대를 대변하는 지표로 간주하여 단일문항인 ‘지역애착도’로 구성하였다. 지역사회 조직으로의 참여의지,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

등은 공통적으로 지역사회로의 개입의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판단하여 단일문항인 ‘지역개입도’로 구성하였다.

(간접적 피해경험 변수) 다수 선행연구에서 간접적 피해경험과 관련된 질문은 두 가지 유형으로, 범죄발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주변인 또는 대중매체)에 대한 질문과 설문 응답자의 지인이 경험한 범죄피해에 대한 질문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간접적 피해경험 문항은 주변인 또는 대중매체로부터 범죄관련 정보를 접하게 되는 빈도와 응답자 주변인의 범죄피해경험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 피해경험을 묻는 질문과 통합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지역경찰활동 변수) 선행연구에서의 지역경찰활동 변수는 공식적 통제, 주민의 경찰활동 인식 및 가시성, 주민의 경찰활동에 대한 친밀성, 신뢰도, 만족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경찰의 지역개입도, 가시성과 같은 항목은 주민 입장에서 가시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경찰활동에 대한 친밀성, 신뢰도, 만족도 등은 주민의 심리적, 비가시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활동에 대한 친밀성 또는 신뢰도를 묻는 질문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종합적으로 지역경찰활동 변수를 구성하는 지역경찰의 가시성, 신뢰도, 만족도 등에 대한 세부질문은 타 변수의 측정질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질문 간의 경계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지역경찰활동 변수에 관한 진단을 바탕으로 지역경찰활동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경찰활동에 대한 가시성, 친밀성, 신뢰성, 만족도와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연계정도를 묻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앞서 서술한 경찰활동에 대한 가시성, 친밀성, 만족도와 같은 하위항목을 묻는 질문의 경계가 불명확한 점은 변수를 활용한 분석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역경찰활동 변수는 하위항목인 경찰활동에 대한 가시성, 친밀성, 지역사회 연계정도 등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일 변수로 간주하였다.

[표 3-1] 설문조사 항목 및 내용

설문지 PART	의미	설문조사 항목
1. 이웃관계 및 동네 사람에 대한 인식	1.1 비공식적 사회통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착정도
		지역사회 활동,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본인 및 동네이웃들의 개입정도
2. 지역 환경에 대한 인식	2.1 지역 만족도	지역에 대한 만족도
	2.2 물리적 무질서	지역의 물리적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2.3 사회적 무질서	지역 내 위험행동 야기 인물의 유무
3. 범죄에 대한 두려움	3.1 일반적인 두려움	지역의 범죄 안전도
		특정상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3.2 구체적인 두려움	범죄 두려움을 느끼는 장소
	3.3 두려움 체감 환경	구체적인 범죄유형에 대한 두려움
4. 범죄 피해에 대한 인식	4.1 간접적 피해경험	지역 내 큰 범죄두려움을 느끼는 장소
	4.2 직접적 피해경험	범죄 뉴스 노출 정도
	4.3 일반적 취약성	개인 혹은 주변사람들의 범죄관련 경험
		일반적인 범죄피해 대상이 될 가능성
	4.4구체적 취약성	일반적인 범죄발생 시 대응 가능성
		구체적인 범죄피해 대상이 될 가능성
5. 범죄예방 활동	5.1 행동적 범죄예방활동	구체적인 범죄발생 시 대응 가능성
	5.2 물리적 범죄예방활동	범죄예방을 위한 개인의 행동 정도
		범죄예방을 위한 개인의 물리환경 개선 정도
	5.3 지역경찰활동	경찰활동에 대한 가시성
		경찰활동에 대한 친밀성
		경찰활동에 대한 신뢰성
	5.4 범죄예방 조치 및 활동	경찰활동에 대한 만족도
		경찰활동의 지역사회 연계 정도
주민들이 원하는 안전대책		

출처: 연구진 작성

[표 3-2] 범죄두려움과 관련된 요인에 관한 연구

범죄두려움에 관한 선행연구		범죄두려움과 관련된 요인														
		1. 이웃 관계		2. 지역 환경 인식			3. 범죄두려움			4. 범죄 피해인식			5. 범죄예방 활동			
저자 (년도)	이론 및 모형	1.1	1.2	2.1	2.2	2.3	3.1	3.2	3.3	4.1	4.2	4.3	4.4	5.1	5.3	5.4
		사	비	지	물	사*	일	구	두	간	간*	직	일	4.5	5.2	지*
차훈진 (2007)	범죄피해모형, 위험해석모델/ 위험해석접근, 사회심리학적 모형/인구사회 학적 모형, 지역사회 무질서 모형, 취약가설	○	—	—	○	—	○	○	—	○	○	○	○	○	○	—
김소희 (2015)	범죄피해 모형, 취약성 모형, 무질서 모형, 사회통합 모형, 도구적 시각 모델, 표현적 시각 모델, 안심모형, 책임모형	○	○	—	○	○	—	○	—	—	○	○	—	—	○	—
김동현 (2015)	피해가설, 간접피해 모델, 사회해체이론(지역사회 무질서, 공식·비공식적 사회통제 요인, 사회적 통합)	○	○	—	○	—	○	—	—	—	—	○	—	—	○	—
김성언 (2018)	범죄피해, 범죄두려움과 삶의 질(전반적 일상생활의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	○	○	○	○	○	○	○	—	—	○	○	—	—	○	—
류준혁, 정승민 (2011)	범죄피해모형, 무질서모형, 사회통합모형	○	○	—	○	○	○	○	—	—	—	○	—	—	—	—
이명우 외 (2014)	취약성 모델, 무질서 모델, 사회통합모델, 지역사회경찰 활동 모델	○	—	—	○	○	○	○	—	—	—	○	—	—	○	—
박정선, 이성식 (2010)	취약성모델, 무질서모델, 사회통합모델, 지역사회경찰 활동모델	○	○	—	○	○	—	○	—	—	—	○	—	—	○	—
강지현 (2019)	취약성모델, 무질서모델, 사회통합모델	○	○	—	○	○	○	○	—	—	○	○	—	—	○	—

범죄두려움에 관한 선행연구		범죄두려움과 관련된 요인														
		1. 이웃 관계		2. 지역 환경 인식			3. 범죄두려움			4. 범죄 피해인식			5. 범죄예방 활동			
저자 (년도)	이론 및 모형	1.1	1.2	2.1	2.2	2.3	3.1	3.2	3.3	4.1	4.2	4.3	4.4	5.1	5.3	5.4
		사	비	지	물	사*	일	구	두	간	간*	직	일	행	지*	범
김주연, 윤우석 (2019)	위험해석모델, 범죄피해위험 인지모형, 범죄두려움모형, 범죄예방활동모 형, 취약성가설, 사회통제가설, 경찰가설	○	—	—	○	○	○	○	—	—	○	○	○	○	○	—
성용은, 유영재 (2007)	피해가설, 취약가설, 간접피해가설	—	—	—	—	—	—	○	—	—	○	○	○	—	—	—
이도선 (2011)	범죄예방활동 모형, 범죄두려움모형	—	—	—	—	—	—	○	—	—	—	○	—	—	○	—
장안식 (2015)	범죄피해모형, 취약성모형, 무질서모형	○	○	○	○	○	—	○	—	—	—	○	—	—	○	—
조상현 외 (2017)	범죄피해경험 모 델, 범죄취약성 모델, 지역무질 서 모형, 사회통 합 모형, 지역사 회경찰활동 모형	○	○	—	○	○	○	—	—	—	○	○	○	—	○	—
류준혁 (2011)	범죄취약성모형 무질서모형, 사회통합모형	○	○	—	○	○	○	○	—	—	—	○	—	—	—	—
윤우석 (2015a)	취약성가설, 범죄피해가설, 무질서가설, 사회통합가설, 지역사회경찰 활동 가설	—	○	—	○	○	○	○	—	—	—	○	—	—	○	—
권주영 (2016)	범죄예방환경 설계, 피해가설, 취약가설, 사회적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	—	—	—	—	—	○	○	○	—	○	○	—	—	—	—
김혜림 (2018)	사회해체모델, 범죄피해모델, 범죄취약성모델 지역무질서 모델, 사회통합모델, 지역사회 경찰활동 모델	—	—	—	—	—	○	○	—	—	—	—	—	—	—	—
사: 사회적응집력/비: 비공식적 사회통제/지: 지역만족도/물: 물리적무질서/사*: 사회적무질서/일: 일 반적두려움/구: 구체적두려움/두: 두려움체감환경/간: 간접피해경험/간*: 언론을 통한 간접피해경험/ 직: 직접피해경험/일: 일반·구체적 취약성/행: 행동적·물리적/지*: 지역경찰활동/범: 범죄예방조치 출처: 연구진 작성																

[표 3-3] CPTED 사업효과성 분석을 위해 범죄두려움을 활용한 연구

CPTED 사업효과에 관한 선행연구(*사업전·후 설문)		본 연구에 활용한 변수														
		1.이웃 관계		2. 지역 환경 인식			3. 범죄 두려움			4. 범죄피해인식			5. 범죄예방 활동			
저자 (년도)	이론 및 모형	1.1	1.2	2.1	2.2	2.3	3.1	3.2	3.3	4.1	4.2	4.3	4.4 4.5	5.1 5.2	5.3	5.4
		사	비	지	물	사*	일	구	두	간	간*	직	일	행	지*	범
채인병 (2015)*	범죄예방 환경설계	○	○	○	○	○	—	○	—	—	—	—	—	—	—	○
윤우석 (2015b)	취약성가설, 사회통합가설, 무질서 가설, 경찰가설	○	—	—	○	○	○	—	—	—	—	—	○	—	○	—
윤우석 (2018)*	억제이론, 합리적선택이론 생활양식이론, 일상행위이론, 범죄패턴이론, 상황적범죄예방론 범죄예방환경설계	—	—	—	○	○	○	○	—	—	—	—	○	—	○	—
박영주 외 (2019)*	일상활동이론, 범죄기회이론, 범죄예방환경설 계	○	○	—	○	○	—	○	—	—	—	—	—	—	○	—
박인용 (2013)	범죄예방	—	—	—	—	—	—	○	—	—	—	○	—	—	○	—
김영제 (2007)	환경설계	○	—	—	○	○	—	○	—	—	—	○	—	—	○	○
최현식 (2008)	사회생태학이론 사회발전을 통한 범죄예방 상황적범죄예방 억제이론 범죄예방환경설계	—	—	—	—	—	—	—	—	—	○	—	—	—	—	—
한정호 (2011)	사회해체 이론, 생활양식 이론, 일상활동 이론, 범죄기회 이론, 합리적선택 이론, 환경범 죄학이론, 방어 공간이론, 상황 적범죄예방, 황폐이론/깨진 유리창 이론, 범죄예방 환경설계	○	—	—	—	—	○	○	○	—	—	—	—	—	—	—

사: 사회적응집력/비: 비공식적 사회통제/지: 지역만족도/물: 물리적무질서/사*: 사회적무질서/일: 일
반적두려움/구: 구체적두려움/두: 두려움체감환경/간: 간접피해경험/간*: 언론을 통한 간접피해경험/
직: 직접피해경험/일: 일반·구체적 취약성/행: 행동적·물리적/지*: 지역경찰활동/범: 범죄예방조치
출처: 연구진 작성

2. 효과성 분석 사업 및 대상

1) 여성범죄예방인프라 구축 사업

2019년부터 시작된 여성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은 크게 경찰청 자체사업인 여성안심귀갓길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과 여성가족부와 협업사업인 범죄취약 가구 침입방지시설 보급사업으로 구분된다.

□ 여성안심귀갓길 범죄예방 환경개선

여성안심귀갓길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지정된 여성안심귀갓길에 예산을 투입하여 범죄예방 환경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개별 취약지점의 시설물을 설치 및 개선해주는 사업과 집중 개선사업으로 구분된다. 개별 취약지점 개선사업은 전국 여성안심귀갓길 2,193개소 중 '18~'19년에 개선하지 못한 모든 범죄취약지점의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필요한 시설물 설치 등 맞춤형 환경개선을 수행한다. 사업의 추진절차는 지방청별 여성안심귀갓길 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와 유지보수 협의 후 시설 개선사업을 수행한다. 집중개선사업은 범죄발생, 112신고, 유동인구, 시설현황 등 실제 다양한 취약성 요인들을 분석하여 환경개선이 필요한 여성안심귀갓길 20개소에 집중적으로 개선사업을 진행한다. 추진절차는 경찰서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청과 경찰청 심사를 통해 20개소를 선정·사업을 진행하는 절차를 따른다.

[표 3-4] 대상지 선정 기준

개별 취약지점 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간 조도) 평균 조도 20lux* 미만 혹은 주민이 '어둡다'고 느끼는 지역 * 20lux : CPO 진단 '양호' 기준, 15m 이상의 거리에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최소 밝기• (방범시설 유무) 방범시설이 없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사각지대의 유무) 골목 모퉁이 등 골목길 내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지역
집중 개선지역 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민간기업·재단 등 외부 기관·단체의 예산 투입 규모• 예산 및 인력 투입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지 선정의 적정성•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또는 외부단체와의 협업도 및 역할 분담

출처: 경찰청(2020) 비공개 내부자료

□ 저소득 1인 여성 등 범죄취약가구 침입방지시설 보급사업

범죄취약가구 침입방지시설 보급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협업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 1인 여성 등 범죄취약 200가구를 선정하여, 범죄예방진단을 통해 우수 방법시설(방법창살, 방법방충망 등) 설치하는 사업이다. 침입방지 시설 보급 사업은 집중개선사업과 추진절차가 동일하며, 최종 대상지는 총 4개소가 선정된다.

[표 3-5] 대상지 선정 기준

범죄취약가구 침입방지시설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친화도시 여부 △ 범죄취약가구 지원 조례 제정 또는 제정 예정 여부 지자체 등 관련기관 예산 투입 규모 △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참신성
------------------------	---

출처: 경찰청(2020) 비공개 내부자료

2) 분석 대상지 개요 및 사업 특성

① 사업대상지 현황

□ 인구사회학적 현황

- 연도별 인구 현황

2015년 기준 C동의 전체 인구수는 28,400명이며, 이는 B구 인구 334,762명의 약 8.48%, A시 인구 3,448,737명의 약 0.82%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C동 내의 대상지는 185세대로 총 371명이 거주하고 있다. A시는 2015년 이후로 연 평균 19,011명씩 인구가 감소하였으나, 가구 수는 매년 평균 10,283 가구씩 증가하였다. B구 역시 인구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가구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가구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6] 연도별 A시, B구, C동 인구현황

연도	A시		B구		C동	
	인구수	가구 수	인구수	가구 수	인구수	가구 수
2015	3,448,737	1,335,900	334,762	127,160	28,400	10,136
2016	3,440,484	1,344,170	331,881	127,097	-	-
2017	3,416,918	1,354,401	330,293	128,433	-	-
2018	3,395,278	1,363,608	326,655	129,242	-	-
2019	3,372,692	1,377,030	319,828	128,548	-	-

주: 가구 수는 일반가구 기준.

출처: 국가통계포털(인구, 가구 및 주택 - 읍면동(2015), 시군구(2016~)-2015-2019년도 통계자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1N1502&conn_path=I3. 검색일: 2020.11.29.)

- 연령별 인구 현황

2019년을 기준으로 B구의 거주 인구를 살펴보면, 50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가 85,974명으로 가장 많았다. C동에서도 같은 연령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상지가 속한 C동은 대체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높다. 또한 C동의 경우, 50세 미만 연령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으나, 50세 이상 연령에서는 여성 거주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7] 2019년 연령별 A시 B동 인구현황

구분	A시			B구			C동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전체	3,413,841	1,675,417	1,738,424	321,004	160,101	160,903	28,182	14,302	13,880
0-9세	243,321	124,927	118,394	21,982	11,244	10,738	2,224	1,182	1,042
10-19세	283,240	146,787	136,453	27,193	14,186	13,007	2,549	1,322	1,227
20-29세	436,149	228,729	207,420	41,626	22,399	19,227	3,617	1,912	1,705
30-39세	435,710	222,456	213,254	40,360	21,304	19,056	4,011	2,139	1,872
40-49세	517,782	260,329	257,453	47,905	24,381	23,524	4,518	2,334	2,184
50-64세	877,516	422,010	455,506	85,974	41,795	44,179	7,300	3,564	3,736
65세 이상	620,123	270,179	349,944	55,964	24,792	31,172	3,963	1,849	2,114

주: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한 인구현황으로, 인구총조사에 따른 인구수와 상이함.

출처: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2019년도 통계자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5N&conn_path=I3, 검색일: 2020.11.29.)

- 1인 가구 수 현황

2015년을 기준으로, B구의 1인 가구 수는 32,502세대로 전체 가구 수의 약 25.50%를 차지하고 있으며, C동은 1,987세대로 19.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2015년 A시 B구 C동 가구규모

구분	총 가구 수	1인가구 수	비율(1인가구/전체가구, %)
A시	1,335,900	361,749	27.08
B구	127,160	32,502	25.56
C동	10,136	1,987	19.60

출처: 국가통계포털(가구원수별 가구(일반가구) - 읍면동(2015). 시군구(2016~)-2015년 통계자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02&conn_path=I2, 검색일: 2020.11.29.)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대상지 위치 및 면적

사업대상지가 속해 있는 C동은 A시의 남쪽에 위치하였으며 중소 규모의 공단과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대상지 동쪽에는 두 역이 인접해있으며, 서쪽과 동쪽에는 산이 위치하고 있다.

- 면적: 약 432,000m²



[그림 3-1] 대상지 위치도

출처: 네이버맵(<https://map.naver.com/>, 검색일: 20.11.29.)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용도지역현황

대부분 공업지역으로 초등학교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상지 북측 도로에 인접한 지역은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이 혼재되어있다. 대상지 남북 방향으로는 공업지역이 이어지며 동서쪽은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주거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근접해있다.



[그림 3-2] 대상지 용도지역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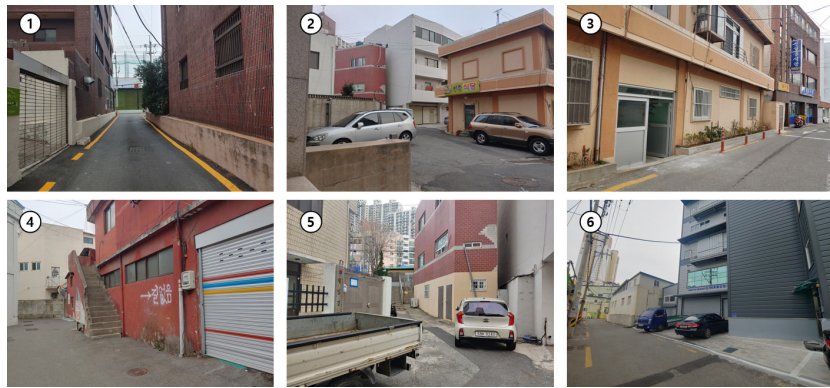
출처: 네이버맵(<https://map.naver.com/>, 검색일: 20.11.29.) 참고하여 재작성

- 물리적 현황

공업지역의 경우, 노후화된 공장이나 폐공장이 밀집되어 있으며, 주거지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주로 운송차량의 교통량이 많아 보행안전시설이 부족하며, 조명시설이 적고, 특히 공장 운영시간 이후 시야 확보가 어렵다. 또한, 공장 주변으로 적재된 화물 또는 쓰레기로 인해 전반적으로 유지관리가 미흡하다.

주거지는 대부분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며, 침입방지시설이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다. 건축물 간 좁은 이격거리로 인해 주간에도 어두운 공간이 있으며, 건축물의 외관에 관리되지 않은 수목으로 자연적 감시가 부족하다.

근린상업지역의 경우, 노후화된 건축물이 많고 주변 가로등 및 건축물 내 접근통제시설이 부족하며 좁은 골목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사각지대가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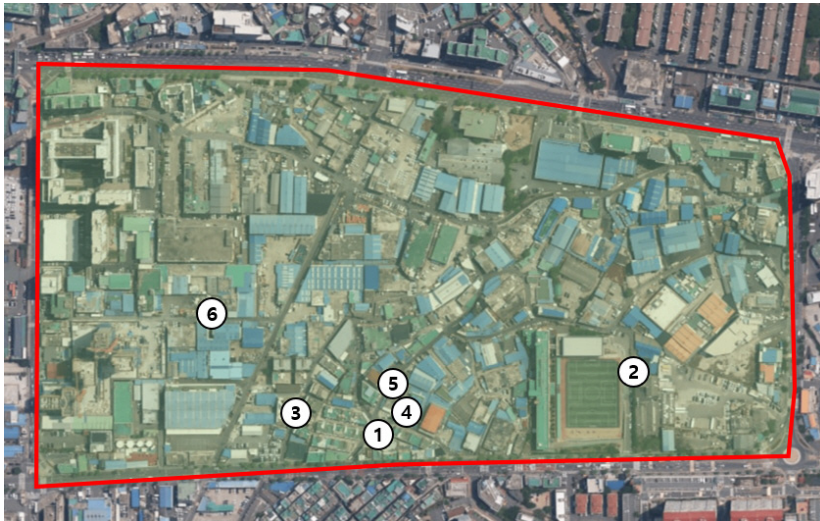
[그림 3-3] 물리적 현황

출처: 네이버맵(<https://map.naver.com/>, 검색일: 20.11.29.); 현장사진은 연구진 촬영

- 건축물 현황

주거지는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있고 담장이나 벽체가 오염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저층 주택이 밀집해있어 좁은 골목길이 많다. 또한 주거 출입문에 방범시설이 없으며, 골목길에 인접한 주택의 창문 높이가 낮아 사생활 보호에 취약하다.

대부분의 공장들이 노후화되어있고 관리가 되지 않는 폐공장이 많아 거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야간 통행 시 범죄 불안감을 증가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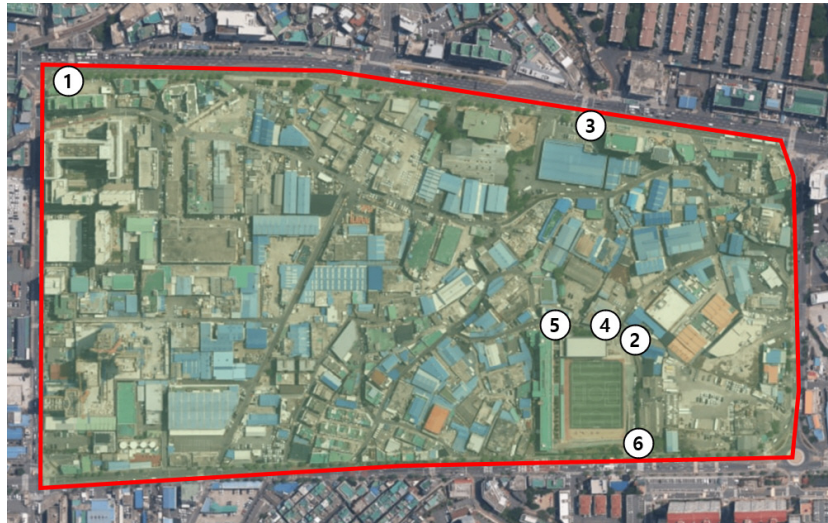
[그림 3-4] 건축물 현황

출처: 네이버맵(<https://map.naver.com/>, 검색일: 20.11.29.); 현장사진은 연구진 촬영

- 주요 시설 현황

지하철역의 경우, 상가 전면부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적 감시를 유도하고 있으나, 일부 역 출입구 주변에는 무단투기된 쓰레기와 가로등으로 인해 시야를 확보하기에 어렵고, 역방향의 일부 보행로와 접한 담장의 유지관리가 미흡하다.

초등학교 교문 주변 벽면에 옐로 카펫이 설치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CCTV 등의 방범시설이 부족하며 외부인접근을 통제하기 어렵다.



[그림 3-5] 주요시설 현황

출처: 네이버맵(<https://map.naver.com/>, 검색일: 20.11.29.); 현장사진은 연구진 촬영

□ 범죄발생현황

• 생활안전지도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를 이용하여 범죄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로와 접한 대상지 중간지점과 역 주변에서 범죄가 발생하였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성폭력의 경우 대상지 인근의 시장에서 발생되었다.



[그림 3-6] 생활안전지도의 범죄 발생 지역

출처: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 검색일: 2020.11.11.)참고하여 연구진 재작성

② A시 B구 C동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 사업주체: 경찰, 지자체, 복지관, 여성단체후원회, 주민
- 예산: 총 1억 500만원
(경찰청 5,000만원 + 지자체·복지관·후원회·주민 5,500만원)
- 사업내용

[표 3-9] A시 B구 C동의 사업 계획 요소 현황

CPTED 전략	사업 계획 요소	개소
영역성 강화	안내지도	2
영역성 강화	안내길 바닥조명	120
영역성 강화	바닥 스탬핑	1
영역성 강화	집중순찰구역 안내판	5
감시 강화	LED보안등	20
감시 강화	반사경	5
감시 강화	CCTV	1
감시 강화	비상벨	2
접근통제	안전펜스	2
유지관리	도색	1

출처: B구청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취약지점을 중심으로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였으며 영역성 강화 전략으로 드림로에 바닥 스탬핑을 하고 주요 입구에 안내지도를 설치하였으며, 안내길 바닥 조명을 설치하여 통행로를 유도하였다.



[그림 3-7] 영역성 강화 전략

출처: 연구진 촬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지점에 CCTV 및 비상벨과 CCTV 안내판을 설치하고, 경찰관 집중 순찰 지역을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순찰한다. LED 보안등을 설치·교체하여 야간에도 시야가 확보되도록 하였으며,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반사경을 설치하였다.



[그림 3-8] 감시 강화 전략

출처: 연구진 촬영

접근통제가 필요한 시설이나 공간에 안전펜스를 설치하였고, 노후 주택에 방범 시설물을 지원하였으며, 대상지가 관리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인식을 위해 주요 골목 내 노후화된 벽을 도색하여 미관을 개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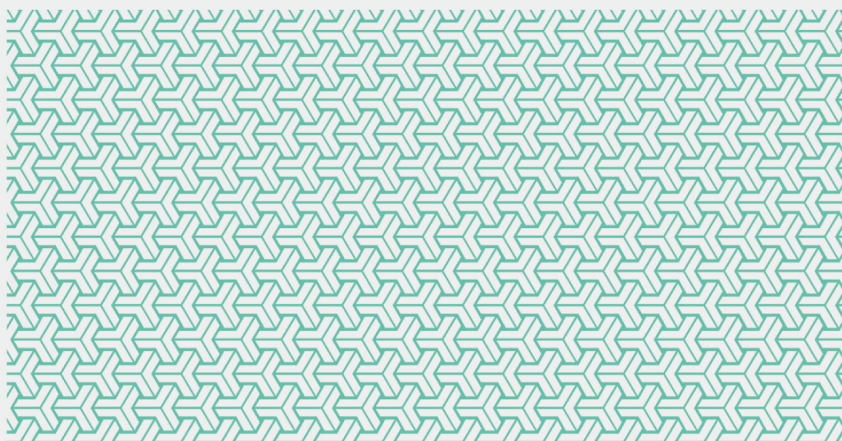


[그림 3-9] 감시 강화 전략

출처: 연구진 촬영

본 연구에 대상지는 여성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을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사업 전 2020년 5월 14일~ 2020년 5월 27일의 기간 동안 107명, 사업 후 2020년 10월 27일부터 2020년 10월 29일의 기간 동안 108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4장 범죄예방 효과성 분석



1. 사업 전·후 사람들의 인식 변화 분석
2. 사업 전·후 범죄두려움의 감소 효과 분석
3.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사업의 효과성 분석

1. 사업 전·후 사람들의 인식 변화 분석

응답자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사전설문에서 32.7%와 67.3%, 사후 설문에서 37%와 63%로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높다. 연령대의 경우 사전 설문은 40대(28%), 60대 이상(21.6%), 20대(19.6%) 순으로, 사후 설문은 60대 이상(40.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연령대는 비슷한 비중으로 분포하고 있다.

[표 4-1] 응답자 인구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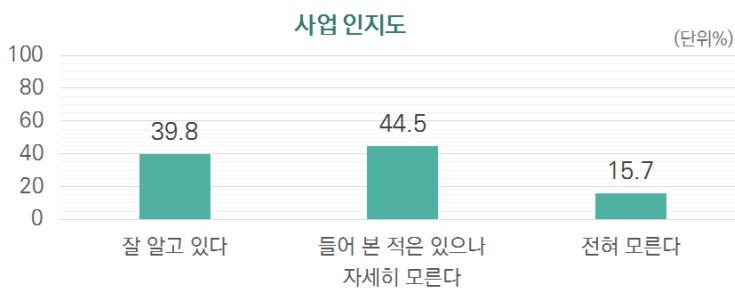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사전(N=107)		사후(N=108)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35	32.7	40	37.0
	여성	72	67.3	68	63.0
연령	10대	0	0	0	0
	20대	21	19.6	17	15.7
	30대	18	16.8	18	16.7
	40대	30	28.0	13	12.0
	50대	15	14.0	16	14.8
	60대이상	23	21.6	44	40.8

출처: 연구진 작성

□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에 대한 인지

대상지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은 해당 지역의 응답자 대부분(84.3%)이 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9.8%로 '들어 본 적은 있으나 자세히 모른다' 응답 비율(44.5%)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사업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 대상지의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에 대한 인식

출처: 연구진 작성

1) 이웃관계 및 동네 사람에 대한 인식

□ 지역에 대한 애착도

사업 대상지의 이웃관계 및 동네 사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착정도를 살펴보았다. 사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2%가 사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4.6%가 지역에 대한 애착이 높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4-2] 지역에 대한 애착정도 응답 결과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지역에 대한 애착정도	사전	5.6	25.2	55.2	14.0	30.8	69.2
	사후	16.7	28.7	42.6	12.0	45.4	54.6

출처: 연구진 작성

* 부정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긍정 = (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

□ 동네 이웃들의 지역사회 개입

지역 주민들의 비공식적 통제에 대한 조사를 살펴보면 사전 설문에서 지역 주민들의 지역사회 조직에 개입정도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은 57.9%, 주민들의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개입정도는 긍정이 45.8%로 사업 대상지의 지역주민들 간 연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설문에서는 지역사회 조직개입이 5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지역사회 문제 개입정도에서 긍정적 응답이 59.2%로 사업 시행 전보다 13.4% 증가하였다.

[표 4-3] 동네 이웃들의 지역사회 개입에 대한 응답 결과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부정*	긍정*
지역 주민들의 지역사회 조직 개입	사전	7.5	34.6	47.6	10.3	42.1	57.9
	사후	15.7	28.7	46.3	9.3	44.4	55.6
주민들의 지역사회 문제 개입	사전	7.5	46.7	37.4	8.4	54.2	45.8
	사후	16.7	24.1	50.9	8.3	40.8	59.2

출처: 연구진 작성

* 부정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긍정 = (매우 그렇다 + 그런편이다)

2) 지역 환경에 대한 인식

□ 지역에 대한 만족도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는 사전 설문에서 ‘그런편이다+매우그렇다’에 응답한 비중이 전체 응답자의 65.4%를 차지하여 지역주민들 대부분이 지역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설문에서 긍정적 응답이 88%로 사전 대비 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2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지역에 대한 만족도 응답 결과

(단위:%)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지역에 대한 만족도	사전	5.6	29.0	59.8	5.6	34.6	65.4
	사후	-	12.0	58.4	29.6	12.0	88

출처: 연구진 작성

* 부정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긍정 = (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

□ 무질서 정도

지역의 무질서 정도는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를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물리적 무질서의 경우 3가지 부문으로 나눠서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우리동네의 ‘가로 환경’, ‘야간 보행환경’, ‘문화/레저시설’에 대한 사전 평가는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61.7%, 72%, 76.6%로 지역의 생활환경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이는 사회적 무질서(위험행동을 야기하는 사람들의 출현 빈도)를 파악하기 위한 응답에서도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59.8%로 높게 나타났다. 사후 설문에서는 우리 동네의 ‘가로 환경’, ‘야간 보행환경’, ‘문화/레저시설’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75.9%, 71.3%, 62%로 사회적 무질서 항목에 대한 긍정적 답변은 76.9%로 나타났다.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시행 후 지역의 생활환경이 긍정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인지하는 응답자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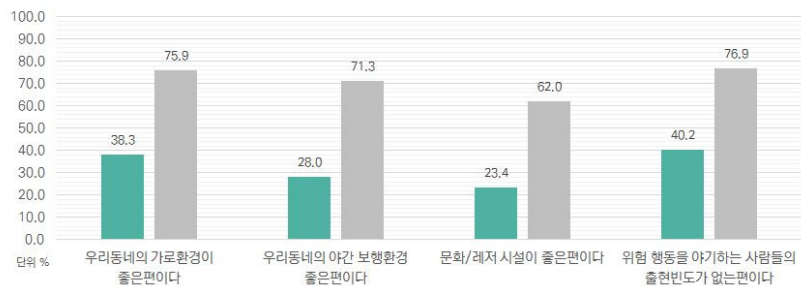
[표 4-5] 무질서 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

(단위:%)

구 분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부정*	긍정*	
물 리 적	우리동네의 가로 환경	사전	7.5	54.2	35.5	2.8	61.7	38.3
		사후	-	24.1	54.6	21.3	24.1	75.9
	우리동네의 야간 보행 환경	사전	17.8	54.2	26.2	1.9	72.0	28.0
		사후	1.9	26.9	47.2	24.1	28.7	71.3
사 회 적	문화/레저 시설	사전	33.6	43.0	21.5	1.9	76.6	23.4
		사후	3.7	34.3	44.4	17.6	38.0	62.0
	위험행동을 아기하는 사람들의 출현 빈도	사전	6.5	53.3	34.6	5.6	59.8	40.2
		사후	-	23.1	53.7	23.2	23.1	76.9

출처: 연구진 작성

* 부정 = (나쁜 편이다+매우나쁘다) / 긍정 =(매우 좋다+좋은 편이다)



[그림 4-2] 지역환경의 무질서 정도에 대한 사업 시행 전후 인식 변화

출처: 연구진 작성

3) 범칙에 대한 두려움

□ 지역의 안전도

지역 자체의 안전도에 대한 응답자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사전 설문에서 ‘안전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42.1%, ‘안전하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 중 57.9%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지역 안전도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설문에서 ‘안전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82.4%, ‘안전하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7.6%로 사업 시행 후, 지역이 범죄발생

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응답자 비율이 큰 폭(40.3%)으로 상승하였다.

[표 4-6] 지역의 안전도에 대한 응답 결과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지역의 안전도	사전	2.8	55.1	41.2	0.9	57.9	42.1
	사후	-	17.6	62.0	20.4	17.6	82.4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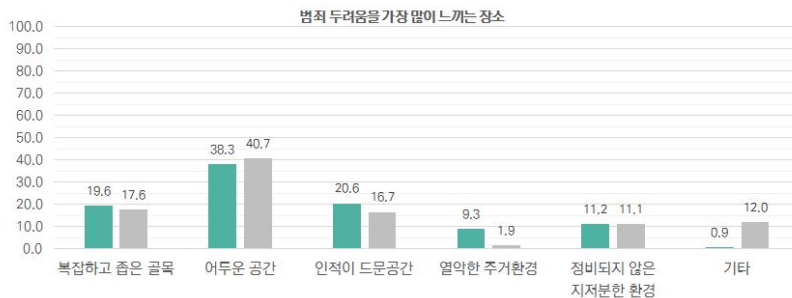
* 부정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긍정 =(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

지역에서 범죄 두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는 장소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사전 설문에서 응답자의 38.3%가 어두운 공간을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드문 인적(20.6%), 복잡하고 좁은골목(19.6%)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40.7%가 어두운 공간, 복잡하고 좁은골목(17.6%), 드문 인적(16.7%) 순으로 나타났다.

[표 4-7] 거주하는 지역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구체적 장소에 대한 응답 결과

구 분		복잡하고 좁은골목	어두운 공간	드문 인적	열악한 주거환경	정비되지 않은 지저분한 환경	기타
두려움을 느끼는 구체적 장소	사전	19.6	38.3	20.6	9.3	11.2	0.9
	사후	17.6	40.7	16.7	1.9	11.1	12.0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4-3] 범죄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장소에 대한 응답 결과

출처: 연구진 작성

□ 일반적인 두려움

일반적인 두려움은 4개의 문항으로 나뉘서 설문을 수행하였다. 사전 설문 결과 낮에 집근처를 혼자 다니는 것과 밤에 집근처를 혼자 다니는 것에 대해 두렵지 않

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93.5%와 39.3%로 시간변화에 따른 두려움의 정도가 큰 차이를 나타냈다. 밤에 혼자 집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약 68.2%로 응답자 절반 이상이 두렵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사후 설문 결과 낮에 집근처를 혼자 다니는 것과 밤에 집 근처를 혼자 다니는 것에 대해서 두렵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97.2%와 73.1%로 사전 설문 대비 야간의 지역에 대한 두려움이 큰 폭(33.9%)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밤에 혼자 집에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87%로 사전 설문 대비 긍정적으로 개선되었다.

[표 4-8] 일반적 두려움에 대한 응답 결과

구 분		매우 두렵다	두려운 편이다	별로 두렵지 않다	전혀 두렵지 않다	부정*	긍정*
낮에 집 근처를 혼자 다니는 것이...	사전	-	6.5	54.2	39.3	6.5	93.5
	사후	0.9	1.9	41.7	55.5	2.8	97.2
밤에 집 근처를 혼자 다니는 것이...	사전	13.1	47.7	30.8	8.4	60.8	39.2
	사후	4.6	22.3	44.4	28.7	26.9	73.1
밤에 혼자 집에 있는 것이...	사전	1.9	29.9	33.6	34.6	31.8	68.2
	사후	0.9	12.1	39.8	47.2	13.0	87.0

출처: 연구진 작성

* 부정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긍정 =(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

□ 구체적인 두려움

구체적인 두려움 항목에서 개인의 특정범죄 유형에 대한 두려움보다 가족이 범죄를 당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설문에서 개인의 경우 집을 비운 사이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오는 상황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61.7%)이 두렵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집근처에서 소매치기 날치기 등을 당할까’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39.3%로 나타났다. 가족이 동일 범죄에 당할까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52.3%로 이타적 두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절도나 협박보다 개인적 두려움(49.5%), 이타적 두려움(59.8%)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설문에서 개인의 경우 집을 비운 사이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오는 상황에 대해서 84.2%, ‘집근처에서 소매치기 날치기 등을 당할까’ 두렵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17.6%로 나타났으며, 가족이 동일 범죄에 당할까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16.7%로 개인의 특정범죄 유형에 대한 두려움과 가족이 범죄를 당할까에 대한 두려움 모두 사전 설문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각각의 두려움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 비율도 감소하였다. 폭행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적 두려움이 23.1%, 이타적 두려움 21.3%로 사전 설문 대비 긍정적인 응답자의 비중이 상승하였다.

[표 4-9] 구체적 두려움에 대한 응답 결과

구 분		매우 두렵다	두려운 편이다	별로 두렵지 않다	전혀 두렵지 않다	부정	긍정
집을 비운 사이도 독이나 강도가 들 어올까...	사전	2.8	35.5	41.1	20.6	38.3	61.7
	사후	2.8	13.0	39.8	44.4	15.8	84.2
내가집 근처에서소 매치기 또는 날치기, 협박을 당할까...	사전	3.7	35.6	36.4	24.3	39.3	60.7
	사후	2.8	14.8	36.1	46.3	17.6	82.4
내가집 근처에서누 군가에게 폭행(성범 죄포함)을 당할까...	사전	2.8	46.7	31.8	18.7	49.5	50.5
	사후	3.7	19.4	29.6	47.3	23.1	76.9
가족이 집 근처에서 소매치기 또는 날치 기, 협박을 당할까...	사전	2.8	49.5	35.5	12.2	52.3	47.7
	사후	1.9	14.8	39.8	43.5	16.7	83.3
가족이 집 근처에서 누군가에게폭행(성범 죄포함)을 당할까...	사전	3.7	56.1	29.9	10.3	59.8	40.2
	사후	1.9	19.4	36.1	42.6	21.3	78.7

출처: 연구진 작성

4) 범죄 피해에 대한 인식

□ 범죄사건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

응답자들의 범죄사건 보도에 대한 노출 빈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신문, TV뉴스, SNS 보도를 통해 범죄사건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전·사후 설문 모두 TV뉴스를 통해 범죄사건을 접하는 경우가 3개의 보도 루트 중 92.5%, 79.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시행 전 대비 사업 시행 후 범죄사건 보도에 대한 노출 빈도가 신문, TV뉴스 SNS보도 모두 각각 17.5%, 12.8%, 13.7% 감소하였다.

[표 4-10] 범죄사건 보도기사 노출에 대한 응답결과

구 분		전혀 접하지 못한다	가끔 접한다	자주 접한다	매우 자주 접한다
신문	사전	16.8	55.1	23.4	4.7
	사후	34.3	43.5	18.5	3.7
TV뉴스	사전	7.5	38.3	38.3	15.9
	사후	20.3	41.7	27.8	10.2
SNS보도	사전	17.8	41.1	32.7	8.4
	사후	31.5	38.9	22.2	7.4

출처: 연구진 작성

□ 범죄피해 경험

거주지역 내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은 대부분 적었으나, 그 중 사전·사후 설문조사 모두 ‘오토바이나 자전거 도난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7.8%, 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업 시행 전·후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응답결과를 비교한 결과, 침입범죄는 7.5%, 절도범죄는 12.2% 감소하였다.

[표 4-11]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응답결과

구 분	경험이 있다		경험이 없다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집을 비운사이에 도둑이 든 적이 있다	10.3	2.8	89.7	97.2
사람이 있을 때 집안에 강도가 든 적이 있다	1.9	1.9	98.1	98.1
집 근처에서 소매치기, 낚치기, 들치기 등을 당한 적이 있다	3.7	3.7	96.3	96.3
집 주변에서 오토바이, 자전거를 도난당한 적이 있다	17.8	5.6	82.2	94.4
집 근처에서 폭행(성범죄 포함)이나 협박을 당한 적이 있다	2.8	2.8	97.2	97.2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4-4] 범죄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장소에 대한 사업 시행 전후 응답 결과

출처: 연구진 작성

□ 범죄피해위험인지

일반적인 범죄피해위험인지 항목으로 개인의 범죄피해가능성, 개인의 방어능력, 피해결과에 대한 지속성 등 3가지로 구분하였다. 사전 설문 결과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11.2%, '누군가 나를 공격한다면, 나는 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31.8%로 범죄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보았으나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정적 응답(68.2%)이 높았다. 하지만 '범죄피해를 당하게 될 경우, 그 결과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응답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3.3%)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사후 설문에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8.3%, '누군가 나를 공격한다면, 나는 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46.3%, '범죄피해를 당하게 될 경우, 그 결과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응답에서는 앞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7.4%)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구체적인 범죄피해위험인지를 살펴보면 '절도', '노상절도', '폭행'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사전설문 응답결과는 9.3%, 5.6%, 9.3%로 대체로 범죄피해자가 될 가능성에 대해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후 설문에서도 8.3%, 7.4%, 6.5%로 구체적인 범죄피해 위협의 인지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범죄피해위험인식에 대한 응답 결과

구 분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	전혀 낮다	부정	긍정
일 반 적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해 범죄피해를 당 할 가능성이 높다	사전	0.9	10.3	66.4	22.4	11.2	88.8
		사후	-	8.3	50.0	41.7	8.3	91.7
	누군가 나를 공격한 다면, 나는 내 자신 을 방어할 수 있다	사전	1.9	29.9	44.9	23.3	68.2	31.8
		사후	6.5	39.8	26.9	26.8	53.7	46.3
	내가 범죄피해를 당한다면, 피해 결 과가 다른 사람보 다 더 심각하고 오 래 지속될 것이다	사전	5.6	41.1	41.1	12.2	46.7	53.3
		사후	3.7	38.9	31.5	25.9	42.6	57.4
	누군가 몰래 내 돈 이나 물건을 훔쳐 갈 가능성이 높다	사전	0.9	8.4	62.6	28.1	9.3	90.7
		사후	0.9	7.4	41.7	50.0	8.3	91.7
	누군가 강제로 내 돈 이나 물건을 빼앗아 갈 가능성이 높다	사전	0.9	4.7	66.4	28.0	5.6	94.4
		사후	0.9	6.5	38.9	53.7	7.4	92.6
구 체 적	누군가 나를 폭행하 여 다치게 할 가 능성이 높다	사전	0.9	8.4	67.3	23.4	9.3	90.7
		사후	0.9	5.6	41.6	51.9	6.5	93.5

출처: 연구진 작성

5) 범죄예방활동

□ 개인의 범죄예방 활동

개인적으로 범죄피해를 막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응답결과는 크게 일반적 범죄예방활동과 구체적 범죄예방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사전설문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우범지역 피하기’, ‘밤에 되도록 혼자다니지 않기’, ‘밤에 잘 때 창문단속하기’ 행동에는 그런 편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75.7%, 58.9%, 48.6%로 높게 나타났다. 그에 비해 ‘호신도구 소지’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90.6%로 더 높게 나타났다. 사후설문에서는 ‘우범지역 피하기’, ‘밤에 되도록 혼자다니지 않기’, ‘밤에 잘 때 창문단속하기’ 행동에는 그런 편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54.6%, 59.2%, 43.6%로 나타났고, ‘호신도구 소지’의 경우는 사업 시행 전 대비 소지한 비율이 미비하게 감소하였다.

구체적 범죄예방 활동에서 ‘방범창 설치’, ‘방범시스템 설치’, ‘조명설치’에서 그런편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42%, 7.4%, 33.6%이며, 사업 시행 후 31.5%, 16.7%, 35.2%로 방범시스템과 조명을 설치한다는 응답자는 증가하였다.

[표 4-13]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응답 결과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부정	긍정
일반적	우범지역 등의 길목 또는 장소를 피해다닌다.	사전 15.0	60.7	16.8	7.5	75.7	24.3
		사후 5.6	39.8	37.0	17.6	45.4	54.6
	밤에 되도록 나가지 않으며, 나갈 경우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	사전 10.3	48.6	29.9	11.2	58.9	41.1
		사후 9.3	31.5	39.8	19.4	40.8	59.2
	밤에 잘 때 꼭 창문까지 잠고진다.	사전 11.2	37.4	36.4	15.0	48.6	51.4
		사후 12.0	44.4	26.9	16.7	56.4	43.6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도구를 가지고 다닌다.	사전 0.9	8.5	43.9	46.7	90.6	9.4
		사후 1.9	8.3	40.7	49.1	89.8	10.2
	현관이나 창문에 방범시설을 설치한다.	사전 3.7	38.3	37.4	20.6	42.0	58.0
		사후 5.6	25.9	36.1	32.4	31.5	68.5
구체적	민간경비회사를 통해 방범시스템을 집에 설치한다.	사전 0.9	6.5	42.1	50.5	7.4	92.6
		사후 0.9	15.8	38.9	44.4	16.7	83.3
	집 주위에 조명 등을 설치한다.	사전 5.6	28.0	34.6	31.8	33.6	66.4
		사후 7.4	27.8	31.5	33.3	35.2	64.8

출처: 연구진 작성

□ 경찰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인식

경찰 범죄예방 활동에 대해 사전 설문에서 순찰활동(43%)과 지역과의 연계활동(43%)을 제외하고는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활동의 친밀성, 신뢰성, 만족도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중 경찰활동에 대한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설문에서 경찰 범죄예방 활동에 대해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이 경찰활동의 가시성, 친밀성, 신뢰성, 만족도, 지역과의 연계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사전 설문 대비 경찰의 순찰활동에 긍정적인 의견이 12.6% 증가하였고, 주민이 참여하는 방범활동은 24.6%, 경찰서비스 제공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25.5% 증가하였다.

[표 4-14] 경찰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응답 결과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가시성	동네에서 순찰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	사전	15.9	41.1	41.1	1.9	57.0	43.0
		사후	12.0	32.4	40.8	14.8	44.4	55.6
친밀성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등에 방문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사전	4.7	28.0	59.8	7.5	32.7	67.3
		사후	1.9	28.7	48.1	21.3	30.6	69.4
	언제 어디서든 지역 경찰에게 편안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사전	2.9	30.8	57.0	9.3	33.7	66.3
		사후	6.5	13.0	54.6	25.9	19.5	80.5
신뢰성	우리 지역 경찰은 경찰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전	0.9	26.2	64.5	8.4	27.1	72.9
		사후	8.3	16.7	47.2	27.8	25.0	75.0
	우리 지역 경찰은 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사전	0.9	29.9	61.7	7.5	30.8	69.2
		사후	6.5	14.8	54.6	24.1	21.3	78.7
	우리 지역 경찰은 범죄가 발생하여 신고하면 범인을 즉각 잡아준다	사전	1.9	45.8	48.6	3.7	47.7	52.3
		사후	2.8	27.8	45.4	24.0	30.6	69.4
	우리지역 경찰활동을 통해 안전한 동네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사전	4.7	38.3	51.4	5.6	43.0	57.0
		사후	3.7	21.3	48.1	26.9	25.0	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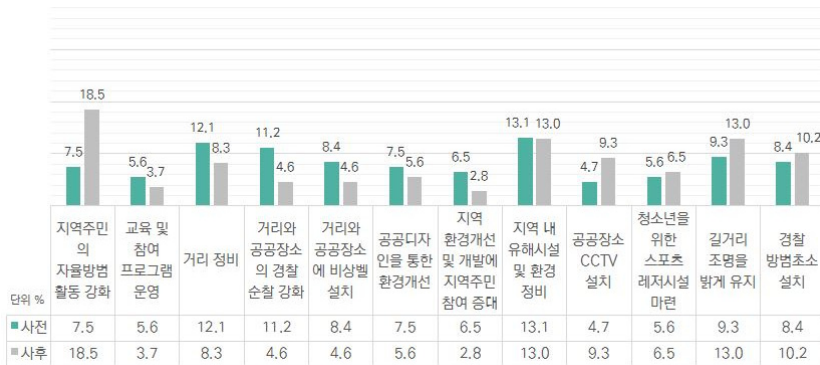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나는 지역 경찰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사전	4.7	38.3	52.3	4.7	43.0	57.0
	사후	2.8	19.4	51.9	25.9	22.2	77.8
우리 동네 경찰은 주민과 함께 합동으로 방범활동을 하는 편이다	사전	7.5	49.5	39.3	3.7	57.0	43.0
	사후	2.8	29.6	49.1	18.5	32.4	67.6
우리 동네 경찰은 다른 동네보다 경찰서비스를 많이 제공한다	사전	2.8	54.2	38.3	4.7	57.0	43.0
	사후	2.8	28.7	45.4	23.1	31.5	68.5

출처: 연구진 작성

* 부정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긍정 =(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

□ 지역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대책

지역주민들에게 동네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범죄예방 대책에 대한 질문에 순위별로 응답한 결과, 사전 설문에서 지역주민의 지역 내 유해시설 및 환경정비(13.1%)가 1순위, 거리 정비(12.1%)가 2순위, 거리와 공공장소의 경찰 순찰 강화(11.2%)가 3순위로 나타났다. 사후 설문에서 지역주민의 자율방범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8.5%로 1순위로 나타났고, 지역 내 유해시설 및 환경정비(13.1%)가 2순위, 길거리 조명을 밝게 유지하는 것(13%)이 3순위로 나타났다.



[그림 4-5] 지역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대책 응답 결과

출처: 연구진 작성

6) 종합분석

□ 사업 전·후 두려움 변화 분석

사업 대상지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전·후 지역주민들의 범죄 두려움 변화를 파악하였다. 사전·사후 분석을 위해서는 동일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해야하나 조사 대상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전·사후 응답 대상자의 성별과 연령별 분포를 비슷하게 유지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고자 노력하였다.

사전·사후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대체로 사전에 비해 사후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안전에 대한 불안 정도나 밤에 혼자 다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후에 긍정적으로 변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환경으로 인해 인지하고 있는 개인의 취약성도 노상 소매치기를 제외하고는 사전 대비 사후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 외에도 지역의 경찰활동에 대한 인지나 무질서와 관련된 항목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 비중이 높아졌다.

이웃관계 및 동네 사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지역에 대한 애착도의 경우 사전·사후 모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설문했으나 사전 대비 사후에는 응답 빈도가 줄어들었다. 지역사회 개입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조직 개입에 대한 의지는 사전·사후 긍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으나 그 정도는 사후에 줄어들었다. 이와는 달리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개입은 사전에서 부정적 응답이 더 많았다가 사후에는 긍정적 응답이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사업 수행시 주민들이 개입하고자 하는 지역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함께 계획되어야 지역사회 조직 및 지역에 대한 교류가 많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사업 전·후 범죄두려움의 감소 효과 분석

□ 지역주민들의 사업 전·후 범죄 두려움 변화

사업 전·후 사람들의 범죄두려움 변화를 t-test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사업 수행 전보다 사업 수행 후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범죄두려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결과를 보인다. 즉, 여성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 이전에 비해 이후 주민들이 느끼는 지역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일반적이 상황에서의 범죄두려움, 특정범죄에 대한 두려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그 다음으로 가족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이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지역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일반적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시사해 준다.

[표 4-15] 여성범죄예방인프라구축사업의 범죄두려움 감소 효과

(사전N=107, 사후N=108) 단위: 평균(점)						
구분	사전	사후	평균 대응차	증감률	t	
일반적 두려움 통합	2.23	1.79	-0.44	-19.83%	-5.94 ***	
지역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2.60	1.97	-0.63	-24.09%	-7.76 ***	
낮에 집 근처를 혼자 다니는 것	1.67	1.48	-0.19	-11.44%	-2.37 ***	
밤에 집 근처를 혼자 다니는 것	2.65	2.03	-0.63	-23.60%	-5.56 ***	
밤에 혼자 집에 있는 것	1.99	1.67	-0.32	-16.28%	-3.00 ***	
침입범죄	2.21	1.74	-0.46	-21.08%	-4.29 ***	
나	노상절도	2.19	1.74	-0.45	-20.40%	-3.94 ***
	폭행 (성범죄 포함)	2.34	1.80	-0.54	-23.12%	-4.67 ***
가족	노상절도	2.43	1.75	-0.68	-27.98%	-6.57 ***
	폭행 (성범죄 포함)	2.53	1.81	-0.73	-28.71%	-6.89 ***

주: ***p < 0.01

출처: 연구진 작성

□ 성별에 따른 범죄두려움 변화

범죄두려움과 관련된 취약성 이론에 따르면 개인적인 취약성이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신체적으로나 방어능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을 경우, 범죄두려움을 더 크게 느낀다는 것이다. 이에 성별에 따라 설문문항별로 응답 분포가 다른지, 그리고 성별에 따라 사전·사후 범죄두려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전에는 ‘밤에 집 근처를 혼자 다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지역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가족이 폭행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순으로 수치가 높았다. 사후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모든 항목에서 두려움 평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밤에 집 근처를 혼자 다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각각 23.88%와 22.15%로 감소하였고 대부분이 20%내외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이 성별에 관계없이 두려움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표 4-16] 여성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의 범죄두려움 감소 t-test 분석(여성)

구분		사전	사후	평균대응차	증감률	t	
일반적 두려움		2.32	1.85	-0.47	-20.15%	-5.07	***
지역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2.57	1.96	-0.61	-23.88%	-5.88	***
낮에 집 근처를 혼자 다니는 것		1.72	1.51	-0.21	-12.05%	-2.05	***
밤에 집 근처를 혼자 다니는 것		2.83	2.21	-0.63	-22.15%	-4.67	***
밤에 혼자 집에 있는 것		2.14	1.72	-0.42	-19.56%	-3.06	***
침입범죄		2.33	1.88	-0.45	-19.33%	-3.24	***
나	노상절도	2.25	1.85	-0.40	-17.65%	-2.75	***
	폭행 (성범죄 포함)	2.43	1.97	-0.46	-18.92%	-3.20	***
가 족	노상절도	2.39	1.91	-0.48	-19.97%	-3.65	***
	폭행 (성범죄 포함)	2.49	1.94	-0.54	-21.92%	-4.14	***

주: ***p < 0.01

출처: 연구진 작성

남성의 경우 사전에는 지역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2.66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고, 그 다음으로는 가족이 폭행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밤에 집 근처를 혼자 다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에서도 1위는 여전히 지역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나 그 수치가 24.73%로 감소하였다. 지역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포함한 항목에서 두려움이 감소하였으며, ‘낮에 집 근처를 혼자 다니는 것’, ‘밤에 혼자 집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이다. 이는 대상지에 적용된 범죄예방관련 사업이 두려움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표 4-17] 여성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의 범죄두려움 감소 t-test 분석(남성)

구분	사전	사후	평균대응차	증감률	t	
일반적 두려움	2.05	1.68	-0.37	-17.99%	-3.04	***
지역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2.66	2.00	-0.66	-24.73%	-5.19	***
낮에 집 근처를 혼자 다니는 것	1.57	1.43	-0.15	-9.32%	-1.10	
밤에 집 근처를 혼자 다니는 것	2.29	1.73	-0.56	-24.53%	-3.08	***
밤에 혼자 집에 있는 것	1.69	1.58	-0.11	-6.57%	-0.67	
침입범죄	1.94	1.50	-0.44	-22.79%	-2.81	***
나 노상절도	2.06	1.55	-0.51	-24.65%	-2.83	***
폭행 (성범죄 포함)	2.14	1.50	-0.64	-30.00%	-3.49	***
가 노상절도	2.51	1.48	-1.04	-41.34%	-6.51	***
족 폭행 (성범죄 포함)	2.63	1.58	-1.05	-40.08%	-6.12	***

주: ***p < 0.01

출처: 연구진 작성

□ 연령에 따른 범죄두려움 변화

사업 전·후 사람들의 범죄두려움 변화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연령대에서 범죄두려움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범죄두려움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면 20대의 경우 일반적 두려움이 20.33% 감소했다. 지역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31.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낮이나 밤에 집 근처를 다니거나 밤에 혼자 집에 있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노상절도나 폭행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자신보다 가족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여성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의 범죄두려움 감소 t-test 분석(20대)

구분	사전	사후	평균대응차	증감률	t	
일반적 두려움	2.01	1.60	-0.41	-20.33%	-2.77	***
지역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2.67	1.82	-0.84	-31.62%	-5.13	***
낮에 집 근처를 혼자 다니는 것	1.38	1.18	-0.20	-14.81%	-1.38	
밤에 집 근처를 혼자 다니는 것	2.24	1.88	-0.36	-15.89%	-1.49	
밤에 혼자 집에 있는 것	1.76	1.53	-0.23	-13.20%	-0.96	
침입범죄	2.00	1.53	-0.47	-23.53%	-1.68	***
나 노상절도	2.05	1.29	-0.75	-36.80%	-2.80	***
폭행 (성범죄 포함)	2.48	1.47	-1.01	-40.61%	-3.77	***
가 노상절도	2.57	1.47	-1.10	-42.81%	-4.73	***
족 폭행 (성범죄 포함)	2.62	1.59	-1.03	-39.36%	-4.18	***

주: ***p < 0.01

출처: 연구진 작성

30대는 사업 전 설문 결과, ‘밤에 집 근처를 혼자 다니는 것’, ‘지역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 시행 후 각 26%, 17%씩 감소되어 여성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밤에 집 근처를 혼자 다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한 데에는 조명의 설치 및 교체 사업 효과가 드러나는 것으로 추측된다. 30대의 사업전·후 일반적 두려움은 18.56%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상절도나 폭행에 대한 두려움도 감소하였으나 사전 사후 대비 차이가 미비하므로 유의하지 않았다. 침입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20% 감소하였으며, 여성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19] 여성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의 범죄두려움 감소 t-test 분석(30대)

구분	사전	사후	평균대응차	증감률	t	
일반적 두려움	2.32	1.89	-0.43	-18.56%	-2.62	***
지역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2.61	2.17	-0.44	-17.02%	-2.37	**
낮에 집 근처를 혼자 다니는 것	1.83	1.50	-0.33	-18.18%	-1.62	
밤에 집 근처를 혼자 다니는 것	2.78	2.06	-0.72	-26.00%	-2.97	***
밤에 혼자 집에 있는 것	2.06	1.83	-0.22	-10.81%	-0.99	
침입범죄	2.22	1.78	-0.44	-20.00%	-2.06	**
나 노상절도	2.22	2.06	-0.17	-7.50%	-0.65	
폭행 (성범죄 포함)	2.50	1.94	-0.56	-22.22%	-2.01	
가 노상절도	2.39	2.00	-0.39	-16.28%	-1.51	
족 폭행 (성범죄 포함)	2.39	2.00	-0.39	-16.28%	-1.44	

주: ***p < 0.01

출처: 연구진 작성

40대의 사업 시행 전 두려움 조사 결과, 가족이 폭행 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지역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컸다. 사업 전·후 범죄두려움 변화 분석 결과, 일상생활에서의 두려움에 비해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감소되었다. 가족의 폭행 피해 우려에 대한 두려움이 37.32%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으며, 가족의 노상절도 피해 우려에 대한 두려움이 33.20%, 자신이 노상절도에 노출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32.13%, 자신이 폭행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26.42%로 나타났다. 일반적 두려움은 21.12%, 지역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27.88% 감소하였으며, 이 외 일상생활에서의 두려움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큰 차이가 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표 4-20] 여성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의 범죄두려움 감소 t-test 분석(40대)

구분	사전	사후	평균대응차	증감률	t	
일반적 두려움	2.29	1.81	-0.48	-21.12%	-2.74	**
지역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2.67	1.92	-0.74	-27.88%	-3.63	***
낮에 집 근처를 혼자 다니는 것	1.63	1.46	-0.17	-10.52%	-0.98	
밤에 집 근처를 혼자 다니는 것	2.70	2.23	-0.47	-17.38%	-1.67	
밤에 혼자 집에 있는 것	2.17	1.62	-0.55	-25.44%	-2.01	
침입범죄	2.27	1.69	-0.57	-25.34%	-2.07	
나 노상절도	2.27	1.54	-0.73	-32.13%	-2.95	***
폭행 (성범죄 포함)	2.30	1.69	-0.61	-26.42%	-2.39	**
가 노상절도	2.53	1.69	-0.84	-33.20%	-3.82	***
족 폭행 (성범죄 포함)	2.70	1.69	-1.01	-37.32%	-3.97	***

주: ***p < 0.01

출처: 연구진 작성

50대는 사업 시행 전·후 범죄두려움에 대한 감소폭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 수가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50대의 연령층이 범죄두려움에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표 4-21] 여성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의 범죄두려움 감소 t-test 분석(50대)

구분	사전	사후	평균대응차	증감률	t	
일반적 두려움	2.17	1.98	-0.18	-8.41%	-0.89	
지역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2.33	2.06	-0.27	-11.61%	-1.42	
낮에 집 근처를 혼자 다니는 것	1.80	1.63	-0.18	-9.72%	-0.92	
밤에 집 근처를 혼자 다니는 것	2.73	2.44	-0.30	-10.82%	-0.89	
밤에 혼자 집에 있는 것	1.80	1.81	0.01	0.69%	0.04	
침입범죄	2.20	2.06	-0.14	-6.25%	-0.49	
나	노상절도	2.20	2.00	-0.20	-9.09%	-0.74
	폭행 (성범죄 포함)	2.33	2.31	-0.02	-0.89%	-0.07
가 족	노상절도	2.33	2.06	-0.27	-11.61%	-1.07
	폭행 (성범죄 포함)	2.47	2.19	-0.28	-11.32%	-1.12

주: ***p < 0.01

출처: 연구진 작성

연령별 사업 전·후 범죄두려움 변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60대의 일반적 두려움 감소 비율이 24.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0대의 범죄두려움 변화는 지역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침입범죄에 대한 불안감 외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사전 설문 결과, 일상생활에서의 두려움 중 낮에 집 근처를 혼자 다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으며,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중에서는 가족이 폭행이나 절도 범죄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높았다. 사업 전·후 증감률을 비교해보면, 일상생활에서의 두려움 중 낮에 집 근처를 혼자 다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34.06%로 대폭 감소하였다.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중에서는 가족이 폭행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37.32%나 감소하여 여성범죄에 방인프라 구축사업의 효과성이 나타났다.

[표 4-22] 여성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의 범죄두려움 감소 t-test 분석(60대)

구분	사전	사후	평균대응차	증감률	t	
일반적 두려움	2.32	1.74	-0.58	-24.90%	-4.02	***
지역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1.78	1.55	-0.24	-13.30%	-1.38	
낮에 집 근처를 혼자 다니는 것	2.83	1.86	-0.96	-34.06%	-4.88	***
밤에 집 근처를 혼자 다니는 것	2.04	1.61	-0.43	-21.03%	-2.06	**
밤에 혼자 집에 있는 것	2.30	1.70	-0.60	-26.03%	-2.64	**
침입범죄	2.17	1.75	-0.42	-19.50%	-1.93	
나 노상절도	2.13	1.70	-0.43	-19.99%	-2.02	**
가 폭행 (성범죄 포함)	2.26	1.66	-0.60	-26.62%	-3.00	***
가족 노상절도	2.39	1.70	-0.69	-28.72%	-3.72	***
가족 폭행 (성범죄 포함)	2.70	1.69	-1.01	-37.32%	-3.97	***

주: ***p < 0.01

출처: 연구진 작성

3.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사업의 효과성 분석

1) 변수 설정

□ 종속변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일반적인 두려움과 구체적인 두려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두려움 변화를 파악하고자 일반적 두려움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일반적 두려움은 ‘낮에 집 근처를 혼자 다니는 것이’, ‘밤에 집 근처를 혼자 다니는 것이’, ‘밤에 혼자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에 대한 설문문항에 대한 의견을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범죄두려움과 관련된 기존의 이론들 중 CPTED 사업과 관련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구축했다. 우선, 무질서 이론과 관련된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로 구분하여 설정하였으며 물리적 무질서는 ‘가로환경’, ‘야간보행환경’, ‘문화레저시설’에 대한 의견을 4점척도로 측정하였고, 사회적 무질서는 ‘위험행동을 야기하는 사람들이 자주 출현하는지’를 4점척도(1점=매우 그렇다, 2점=그런 편이다, 3점=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점=전혀 그렇지 않다)로 질문하여 단일 변수로 구축하였다.

사회통합이론과 관련된 지역사회 유대(비공식적 통제) 변인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착정도’를 4점척도로 측정하여 구축하였고, 지역사회 개입정도는 ‘지역사회 조직에 대한 개입’과 ‘지역 사회 문제에 대한 개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피해여부는 직접적인 피해와 간접적인 피해로 구분하였다. 직접적인 피해는 ‘절도’, ‘강도’, ‘노상절도(오토바이/자전거 도난 포함), 폭행(성범죄포함)에 대한 경험 유무로 측정하였다. 간접적인 피해경험은 신문, TV뉴스, SNS보도에 대한 노출 빈도를 4점척도로 측정하였다.

범죄 피해에 대한 인지는 일반적 취약성과 구체적 취약성으로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적 취약성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누군가 나를 공격한다면, 나는 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내가 범죄 피해를 당한다면, 피해 결과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심각하고 오래 지속될 것이다.’로 구성하고, 구체적 취약성은 ‘누군가 몰래 내 돈이나 물건을 훔쳐 갈 가능성이

높다', '누군가 강제로 내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 갈 가능성이 높다.' '누군가 나를 폭행하여 다치게 할 가능성이 높다'의 문항을 4점척도로 측정하였다.

지역경찰활동은 기존 문헌 및 이론을 바탕으로 경찰활동 가시성, 신뢰도, 만족도, 지역과의 연계와 관련된 항목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변수를 구축하였다. 경찰활동의 가시성은 '동네에서 순찰활동의 목격 정도'를 경찰활동의 신뢰도 문항으로는 '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와 '우리 지역 경찰활동을 통해 안전한 동네가 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4점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경찰활동의 만족도는 '경찰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지'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과의 연계는 '주민과 합동으로 하는지', '타 지역보다 경찰서비스가 더 많은지'로 구성하여 4점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개인적인 특성으로는 인구·사회적 특성인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였다.

2) 기술 통계

아래의 표는 다중회귀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보여준다. 사전 설문 조사를 통해 구축된 일반적 두려움은 평균 2.23이며 최솟값은 1.25이고, 최댓값은 3.25이다. 일반적 두려움에 대한 사후 응답 결과는 평균 1.79이며, 최솟값은 1.00, 최댓값은 3.75로 나타으며, 대상지의 일반적 두려움의 평균값은 사후가 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4-23] 회귀분석에 활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사전)

		(N=108)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일반적 두려움	1.25	3.25	2.23	0.55
	지역사회 유대	1.00	4.00	2.62	0.65
독립변수	물리적 무질서	1.00	4.00	2.88	0.54
	사회적 무질서	1.00	4.00	2.61	0.70
	지역경찰활동	1.17	4.00	2.51	0.53
	직접피해경험 유무	0.00	1.00	0.28	0.45
	간접보도	1.00	4.00	2.37	0.66
	일반적 취약성	1.00	3.33	2.13	0.43
	구체적 취약성	1.00	4.00	1.83	0.55
	성별	0.00	1.00	0.67	0.47
	연령	20.00	67.00	41.32	13.48

출처: 연구진 작성

[표 4-24] 회귀분석에 활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사후)

		(N=107)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일반적 두려움	1.00	3.75	1.79	0.54
	지역사회 유대	1.00	4.00	2.50	0.75
독립변수	물리적 무질서	1.00	3.67	2.11	0.63
	사회적 무질서	1.00	3.00	2.00	0.68
	지역경찰활동	1.17	4.00	2.88	0.66
	직접피해경험 유무	0.00	1.00	0.09	0.29
	간접보도	1.00	4.00	2.08	0.75
	일반적 취약성	1.00	3.33	2.04	0.53
	구체적 취약성	1.00	4.00	1.56	0.58
	성별	0.00	1.00	0.63	0.49
	연령	21.00	82.00	50.16	17.71

출처: 연구진 작성

3) 상관분석

실제 일반적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아래의 표를 살펴보면, 첫째, 사회적 유대 변인은 종속변수인 일반적 두려움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질서 이론과 관련된 무질서 이론과 관련된 물리적 무질서나 사회적 무질서 변인의 경우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종속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취약성 이론과 관련된 변인 중 구체적인 취약성만 일반적 두려움과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경찰활동과 직접피해경험, 간접보도변인은 일반적 두려움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주요변인과 일반적 두려움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무질서에 대한 인지가 높을수록 일반적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경찰활동이나 지역주민간의 사회적 유대는 일반적 두려움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표 4-25] 일반적 두려움과 주요변인과의 상관관계분석 결과(사전)

	일반적 두려움	지역사 회유대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지역경 찰활동	직접피 해경험	간접 보도	일반적 취약성	구체적 취약성
일반적 두려움	1								
지역사 회유대	-0.025	1							
물리적 무질서	0.428**	-0.118	1						
사회적 무질서	0.465**	-0.126	0.325**	1					
지역경 찰활동	-0.084	0.275**	-0.386**	-0.109	1				
직접피 해경험	0.167	0.112	0.233*	0.083	-0.021	1			
간접 보도	0.120	-0.160	0.152	0.043	0.010	0.274**	1		
일반적 취약성	0.089	0.043	-0.009	-0.033	-0.045	-0.050	-0.217*	1	
구체적 취약성	0.326**	-0.116	0.205*	0.314**	-0.215*	0.111	-0.044	0.507**	1

주: ** $p < 0.01$, * $p < 0.05$

출처: 연구진 작성

다음으로 사후 설문결과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유대변수는 사전과는 달리 사후에는 일반적 두려움과 음의 관계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지역에 대한 애착도나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개입의지가 증가할수록 범죄 불안감이 낮아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유의미한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질서와 관련된 변인들을 살펴보면, 물리적 무질서는 사전과 동일하게 모든 종속변수와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사회적 무질서는 그 정도가 사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사전에는 일반적 두려움과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던 변수들이 사후에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 경찰활동에 대한 변인이 일반적 두려움과 관련성이 없었으나 사후에서는 음의 관계성을 보여주었다. 피해경험과 관련된 변수들은 모두 양의 약간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취약성이론과 관련된 요인들도 비슷한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단, 구체적 취약성의 경우에는 사전에 비해 그 상관관계 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사후에는 사회적 유대가 클수록, 지역경찰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일반적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일반적 두려움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표 4-26] 일반적 두려움과 주요변인과의 상관관계분석 결과(사후)

	일반적 두려움	지역사 회유대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지역경 찰활동	직접피 해경험	간접 보도	일반적 취약성	구체적 취약성
일반적 두려움	1								
지역사 회유대	-0.237**	1							
물리적 무질서	0.462 ***	-0.457**	1						
사회적 무질서	0.378 ***	-0.397**	0.482**	1					
지역경 찰활동	-0.439***	0.520**	-0.515**	-0.348**	1				
직접피 해경험	0.318 ***	-0.057	0.214*	0.094	-0.247**	1			
간접 보도	0.219 **	-0.265**	0.112	0.317**	-0.171	-0.021	1		
일반적 취약성	0.227 **	-0.050	0.161	0.120	0.011	0.115	0.208*	1	
구체적 취약성	0.277 ***	-0.015	0.160	0.109	-0.083	0.111	0.067	0.656**	1

주: ** $p < 0.01$, * $p < 0.05$

출처: 연구진 작성

4) 회귀분석

앞서 살펴본 상관관계분석은 주요변인들과의 관계를 단순히 보여주었다면, 회귀분석을 통해 개인적 요인들을 통제할 경우, 주요변인들의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아래의 표는 일반적 두려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이다.

□ 사전 분석

우선 주요변인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분석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사업 이전, 주민들이 느끼는 일반적 두려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무질서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 모두 유의수준 5%에서 양의 값을 가진다. 즉, 지역사회의 환경이 좋지 않다고 인식하거나 취객 혹은 비행소년이 많다고 인식할 경우, 일반적 두려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통제변인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아래 표에서 model2는 통제변인도 함께 고려했을 경우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무질서와 관련된 변인들은 model 1보다 그 영향력이 감소하긴 했으나 model2에서도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더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범죄취약가설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7] 일반적 두려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사전)

사전 모형	Model 1			Model 2		
	B	β	t	B	β	t
(상수)	0.155	0.000	0.323	-0.391	0.000	-0.737
지역사회 유대	0.036	0.043	0.485	-0.028	-0.033	-0.365
물리적 무질서	0.325	0.322	3.306 **	0.315	0.313	3.379 **
사회적 무질서	0.289	0.368	4.178 ***	0.244	0.310	3.528 ***
지역경찰활동	0.072	0.069	0.740	0.082	0.079	0.885
직접피해경험 유무	0.054	0.045	0.497	0.031	0.026	0.304
간접보도	0.040	0.049	0.548	0.054	0.065	0.758
일반적 취약성				0.068	0.053	0.541
구체적 취약성				0.192	0.191	1.882
성별				0.312	0.268	3.288 **
연령				0.002	0.061	0.697
Adjusted R^2	0.274			0.358		

주: B는 비표준화 계수, β 는 표준화 계수이며, ** $p < 0.01$, * $p < 0.05$

출처: 연구진 작성

□ 사후분석

사후 분석 결과 물리적 무질서 변인,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변인, 직접피해경험과 관련된 변인들이 일반적 두려움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다. [표4-37]의 model 1을 살펴보면, 물리적 무질서와 직접피해경험은 양의 관계를, 지역경찰활동과는 음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물리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직접피해경험이 많아질수록 일반적 두려움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두려움과 관련된 주요 요인에서 개인적인 요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model2에서도 동일한 변수가 일반적 두려움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물리적 무질서를 제외하고 지역경찰활동 변인과 직접피해경험 변인은 그 영향력이 model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된 개인적인 요인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일반적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관련된 이론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4-28] 일반적 두려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사후)

사후 모형	Model 1			Model 2		
	B	β	t	B	β	t
(상수)	1.192	0.000	2.831 **	1.029	0.000	2.050 *
지역사회 유대	0.083	0.115	1.133	0.057	0.078	0.784
물리적 무질서	0.222	0.259	2.488 *	0.201	0.235	2.318 *
사회적 무질서	0.122	0.154	1.577	0.149	0.188	1.879
지역경찰활동	-0.196	-0.239	-2.314 *	-0.204	-0.249	-2.465 *
직접피해경험 유무	0.370	0.199	2.365 *	0.402	0.216	2.576 *
간접보고	0.098	0.135	1.560	0.048	0.066	0.736
일반적 취약성				-0.021	-0.021	-0.191
구체적 취약성				0.139	0.150	1.436
성별				0.263	0.236	2.741 **
연령				0.000	0.003	0.028
Adjusted R^2			0.310			0.367

주: B는 비표준화 계수, β 는 표준화 계수이며, ** $p < 0.01$, * $p < 0.05$

출처: 연구진 작성

□ 소결

본 연구에서는 사업 전·후 설문조사를 통해 범죄두려움에 대한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적 두려움과 관련된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는 변인들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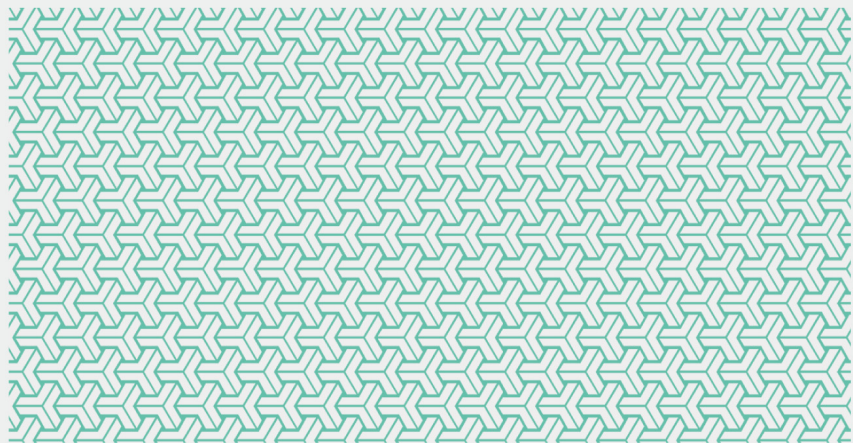
첫째, 물리적 무질서와 관련된 변인의 경우, 사전·사후 분석 모두 일반적 두려움과 유의미한 양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사전 대비 사후 분석에서 영향력의 정도가 약 0.31에서 0.23으로 감소하였다.

둘째, 사회적 무질서 변인의 경우, 사전에는 유의한 변수였으나 사후에는 범죄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김동현(2015)은 물리적·사회적 무질서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재생지정 구역의 무질서 정도가 높을수록 주민들은 높은 수준의 범죄두려움을 보임을 밝혔다. 또한 김소희(2015), 조상현 외(2017), 김성연(2018)의 연구는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모두 범죄두려움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였다. 또한, 윤우석(2015a)은 물리적 무질서가 가족의 범죄두려움을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사회적 무질서는 가족과 본인 모두의 범죄두려움을 높이고, 가구침입 절도 및 강도와 같은 특정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높이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박정선, 이정식(2010), 박정선(2011)의 연구에서는 범죄두려움을 높이는 요인으로 사회적 무질서를 도출하였다.

셋째, 지역경찰활동 변인의 경우, 사전에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사후분석에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선, 이정식(2010)의 연구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이 범죄두려움 감소에 영향력을 있음을, 이명우 외(2014)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물리적·사회적 무질서를 매개로 범죄두려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힌 바 있다. 위의 분석결과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도선(2011)은 경찰활동인식 중 하나인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절도·피해 두려움이 감소함을 제시하였다.

넷째, 직접피해경험의 경우, 사전에 비해 사후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요인을 추가했을 경우, 사전·사후 분석결과 모두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에 그 정도가 약해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전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범죄두려움을 0.26만큼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에는 그 정도가 0.23으로 줄어들어 미비하지만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제5장 결론



1. 연구의 요약
2. 정책 제언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범죄두려움 이론을 기반으로 여성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인 범죄두려움을 감소하고, 향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범죄 두려움’이란 ‘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인지하는 위험’으로 정의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과 위협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범죄 두려움과 관련된 논의는 범죄두려움이 개인이 겪은 범죄피해경험에서 기인한다는 개인적 차원과 지역수준, 커뮤니티, 지역사회경찰활동 등 개인을 둘러싼 환경특성에 기인하는 지역적 차원, 그리고 개인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을 통합한 접근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지역사회유대, 지역경찰활동, 직접 범죄피해경험, 간접 보도, 범죄피해 위험인지 등의 변인을 도출하고, 이 변인들이 사업 시행 이후 사업 전 대비 범죄두려움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평가모형을 구축하였다.

설문대상은 5대 범죄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주민들의 범죄 두려움이 높은 노후 주택밀집지역으로 여성범죄예방인프라 사업을 시행한 지역의 주민들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t-test, 회귀분석 등의 통계분석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범죄두려움과 관련된 다양한 인식변화와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사업 전·후 사람들의 범죄두려움 변화를 분석한 결과, 사업 전 대비 사업 후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범죄두려움이 대체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특성에서는 남녀 모두 범죄두려움이 감소하였고, 특히 여성은 모든 항목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응답자 수가 적은 50대를 제외하고, 사업 전 대비 사업 후의 범죄두려움이 대체로 감소하였으며, 20·40·60대의 경우 특정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대체로 감소하였다.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특성에서 물리적 무질서는 사업 시행 전·후 모두 범죄두려움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사회적 무질서는 사전에 유의미한 변수였으나 사후에는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경찰활동 변인은 사업 시행 후, 일반적 두려움에 음의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사업을 통해 경찰활동을 목격하는 경우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직접피해경험은 사후에만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성별변수의 경우 사업 시행 전 대비 사후에 여성들의 범죄두려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 범죄두려움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여성범죄예방인프라구축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수행하였고,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의 이론들도 일부 검증되었다. 이처럼 범죄두려움 혹은 범죄 발생을 설명하는데 하나의 특성요인으로 단정짓는 것은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범죄예방 관련 정책은 개인적인 노력 이외에 지역적인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범죄예방을 목표로 하는 여성범죄예방인프라 사업이 단순 물리적 개선에 초점을 맞춰 수행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취약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지역적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지를 반영한 범죄예방 프로그램 제언 필요

사회통합이론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사업 시행 전에 비해 사후에 지역사회에 대한 개입이나 애착도가 증가하여 사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것이 실제 범죄두려움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상지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으나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업 수행시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 조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통합과 관련된 이론은 약 100년 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지역사회의 집합효율성이나 비공식적통제능력이 범죄두려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증명해왔다. 또한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동네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개인들이 주로 수행하는 범죄예방활동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간의 융합과 유대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내의 유대 증대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대한 집합효율성이 높아질수록 지역주민들의 범죄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안전팀을 거버넌스와 함께 구축하여 수행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지역경찰활동과의 통해 지역공동체 유대 형성

사후 상관관계 분석에서, 사업 후 사람들의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지역사회경찰활동'변인이 지역공동체 유대 형성과 유의미한 관계에 있었다.

즉,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경찰활동과의 연계는 지역주민들의 범죄두려움을 완화시키고,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도 개선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단순 물리적인 개선에서 나아가 지역 사회 및 경찰과의 연대를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이다. 따라서 여성범죄예방인프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유대 뿐만 아니라 지역경찰활동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서 지역의 자율방범대 활동 등이 범죄예방활동 1순위로 선정된 만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경찰활동을 프로그램에 도입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지역자체에서 범죄발생의 감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경찰과의 연계운영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 지역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사업 수행

본 연구의 분석 대상지는 준공업지대로 대단지 아파트, 시장, 지하철역 등 주요시설 사이에 위치하여 주민 통행량이 매우 많으나 실제 거주자 비율은 낮아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하였다. 개별 범죄두려움에 대한 분석결과, 특정 범죄유형에 자신이나 가족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일반적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 모두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업을 수행하기 앞서, 주민들이 범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하고, 어떤 범죄발생에 대해 두려움이 큰지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이는 지역에 많이 발생하는 범죄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예방환경설계 시설기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며, 범죄유형에 따라 사람들이 느끼는 범죄두려움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할 경우, 개별 대상지에 발생하는 범죄유형에 대한 적절한 사업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예방효과가 높아질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기간, 적절한 면적 및 예산 확보 필요

본 연구의 대상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사업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나 해당 사업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약 40%로 나타났다. 물리적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추진된 사업의 경우, 주민들과의 면담이나 다양한 사업유형들이 고려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주민들이 지역의 안전을 위해 어떤 시설물과 기법이 적용됐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수혜자인 주민들이 변화를 인지할 수 있도록 최소 1년 단위의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및 장마로 인해 실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았다.

또한 특정 지점이 아닌 일정 규모를 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길목이나 특정 지점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람들이 느끼는 범죄두려움에 미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사업지는 대로변과 대상지로 진입하는 주요 골목에 벽화 도색 등 미관을 개선하였으며, 주요 통행로를 중점으로 방범용 CCTV와 비상벨, 솔라 안심등, 반사경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통행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사업 규모가 적을 경우,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이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는 다양한 계획요소들을 적용하기 어렵다. 특히, 사업의 면적은 사업의 예산과도 연관되어 있어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요인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지의 적정규모의 면적 및 예산확보도 중요하다.

□ 범죄두려움의 필터버블효과 완화를 위한 홍보전략 수립

취약성 이론은 자신이 직접적인 범죄피해를 겪지 않아도 범죄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이론이다. 실제 개인이 인지하는 취약성과 간접보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 유의한 수준에서 약한 양의 관계(0.208, $p<0.01$)를 보인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쉽게 접하게 되면서 범죄사건에 대한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이러한 환경은 개개인의 범죄 두려움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범죄현상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죄예방 프로그램에 계획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 활동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신종범죄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소개나 몰래카메라 예방을 위해 몰카탐지기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굿즈, 기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는 여성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범죄두려움을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두려움과 관련된 요인들을 수집·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가지며 향후 이를 보완하는 후속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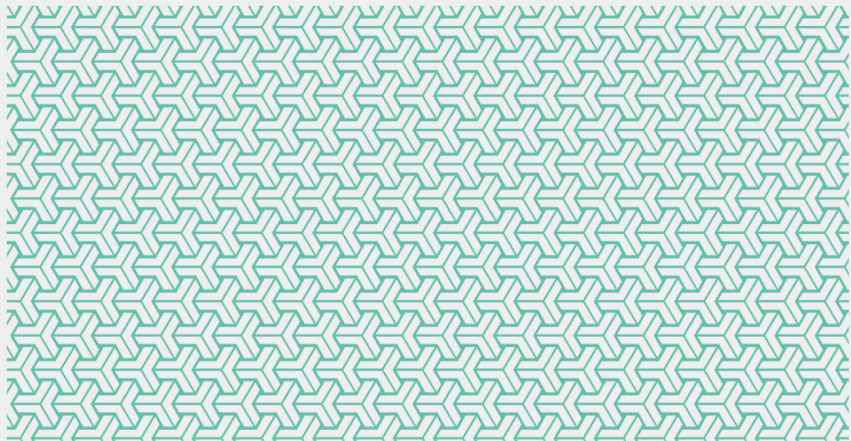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범죄두려움을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했으나 변수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단편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위험해석 모형이나 환경특성과 범죄두려움 간의 관계를 설명한 이론들은 지역적 특성이 개인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취약성에 대한 인지나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범죄두려움과 관련된 요인들의 영향력을 판단하는 것에서 향후에는 변수 간의 관계성을 검증하고, 실제 사람의 인지에 CPTED의 어떤 요인들이 더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대상지 한 곳만 선정하여 사업 전·후 분석을 수행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가진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대상지와 비교 연구를 수행하지 않아 개별 사업들의 효과로 단정짓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개인 및 지역적 특성이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과를 보여준 만큼 공간 유형을 구분하고,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의 범죄두려움과 관련된 이론들을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사업 대상지의 전·후 범죄두려움의 감소효과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자료가 패널조사 자료로 구축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진다. 사업 전·후 응답자 비율을 유사하게 맞추려고 노력했으나, 사전 응답자들의 두려움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검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향후에는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성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이 여성들의 범죄두려움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침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을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지현. (2019). 1인 가구의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 : 가구유형별 범죄두려움 수준과 영향요인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5(4). 23-54.
- 경찰청. (2020). 비공개 내부자료.
- 공주, 권진. (2019). 2019년 서울시 성인지통계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
- 국가통계포털. 가구원수별 가구(일반가구) - 읍면동(2015). 시군구(2016~)-2015년 통계자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02&conn_path=I2(검색일: 2020.11.29.)
- 국가통계포털. 인구, 가구 및 주택 - 읍면동(2015), 시군구(2016~)-2015-2019년도 통계자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502&conn_path=I3(검색일: 2020.11.29.)
-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2019년도 통계자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5N&conn_path=I3(검색일: 2020.11.29.)
- 권주영. (2016). 범죄두려움 감소를 위한 주거지 생활권의 가로공간 환경계획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동현. (2015). 도시재생구역이 거주민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성언. (2018). 범죄 피해와 범죄의 두려움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 12(1). 55-80.
- 김소희. (2015). 시민들의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찰에 대한 신뢰도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김연수. (2010).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과 반응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김영제. (2007).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이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간행정학회보. 16(4). 33-61.
- 김주연, 윤우석. (2019). 무질서가 범죄두려움과 범죄예방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범죄 피해위험인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공간행정학회보. 77. 151-182.
- 김혜림. (2018). 도시쇠퇴와 범죄두려움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네이버맵. (2020). <https://map.naver.com/>(검색일: 2020.11.29.)
- 류준혁. (2011). 범죄 두려움의 위계 일반화 선형 분석. 한국범죄학. 5(1). 3-42.
- 류준혁, 정승민. (2011). 지역 주민의 범죄 위험 인식 분석에 대한 연구: 구체적 범죄 두려움 결정요인 분석. 한국위기관리논집. 7(3). 1-24.
- 박경래, 최인섭, 강은영, 박성훈, 강용길, 김상미. (2013).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의 예비 효과성분석: 마포구 염리동 및 강서구 공진중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성훈. (2011). 범죄기회요인과 지역특성이 가구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22(3). 328-357.
- 박성훈, 김준호. (2012). 범죄현상에 관한 사회생태학적 접근: 지역요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3(2). 260-293.

- 박영주. (2010).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CPTED) 의 효과에 관한 연구-대구주민의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이 범죄피해 및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9(1). 55-82.
- 박영주,정희경, 류준혁. (2019). 대구지역 대학가 범죄예방사업 전후 인식차이 분석. 대구경북연구. 18(1). 23-42.
- 박인용. (2013). CPTED요소를 활용한 범죄예방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수원시 담장허물기 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박정선, 이성식. (2010). 범죄두려움에 관한 다수준적 접근: 주요 모델들의 검증. 형사정책연구. 173-203.
- 박정선. (2011). 범죄두려움의 지역적 차이에 대한 연구-수준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범죄와 비행. 1. 75-96.
- 생활안전지도. (2020). www.safemap.go.kr(검색일: 2020.11.11.)
- 서승연, 이우민, 박효숙, 채인병, 이경환. (2018).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효과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 천안시 원성동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98, 37-62.
- 성용은, 유영재. (2007). 시민의 개인적 특성과 범죄두려움 관계 분석.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4. 261-283.
- 송영남. (2016). 범죄피해의 두려움에 대한 통합적 설명: 취약성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신의기,이경훈,강석진,박형아. (2014). 범죄유발 지역· 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I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양정애. (2020). 세대를 가르는 플랫폼: 연령대별 플랫폼 이용의 양상과 특징. Media Issue. 6(1). 1-11.
- 오봉옥. (2016). 취약집단의 범죄 두려움에 관한 다수준적접근: 여성,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우선희. (2018). 범죄 피해 불안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유럽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8(7). 66-80.
- 유광흠, 조영진, 지혜란, 손동필. (2017). 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 사업의 시행효과 분석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3(5). 13-20.
- 유여경. (2017).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윤우석. (2015a). 가시적 경찰활동 인식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검증: 경찰역할인식의 중요성. 한국범죄학. 9(1). 187-220.
- 윤우석. (2015b).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범죄안전인식 개선효과 검증. 한국범죄심리연구. 11. 154-180.
- 윤우석. (2018). 경찰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의 효과성 분석: 2016년 구미시 실험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0(1). 185-223.
- 이경훈. (1998). 환경특성과 범죄의 두려움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모델. 대한건축학회. 14(12). 23-30
- 이도선. (2011).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인식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 연구. 경찰학논총. 6(2). 143-169.
- 이명우, 황진아, 박한호. (2014).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무질서 감소의 매개효과 측정. 한국경찰학회보. 16(3). 73-102.
- 이병국. (2018). 학교범죄 예방을 위한 CPTED와 지역적 환경요인이 초등학교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이성식. (2000). 거주지역의 특성과 범죄두려움 : 위험해석모델의 검증. 형사정책연구. 7 4-91.
- 장안식. (2011). 개인적특성과 지역적 특성이 범죄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맥락적 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장안식. (2015). 지역의 불평등이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 9(3). 37-67.
- 전준영, 황소윤, 윤영미. (2018). 개인화 알고리즘으로 필터 버블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검증.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21권 3호. pp.369-381.
- 조상현, 고미정, 이도선. (2017). 일반적 범죄두려움의 설명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학. 11(3). 103-124.
- 차훈진. (2007).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채인병. (2015). 안심마을 시범사업이 동네 범죄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천안시 원성 1동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 최현식. (2008). 공동주택에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이 범죄인식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 통계청. (2018). 2018년 사회조사 결과. 11월 6일 보도자료.
- 통계청. (2020). 2020년 사회조사 결과. 11월 18일 보도자료.
- 한민경. (2019). 범죄두려움 연구에 정석이 존재하는가?: 범죄두려움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한국범죄학. 13(2). 33-56.
- 한정호. (2011). 커뮤니티의식 증진을 위한 공동주택단지 외부공간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함주일. (2010). 공동주택의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방범환경설계(CPTED)가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홍동진. (2008). 범죄불안감 감소를 위한 환경설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Baumer, T. L. (1985). Testing a General Model of Fear of Crime: Data from a National Sampl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2(3). 239-255.
- Bursik Jr, R. J. & Grasmick, H. G. (1993). *Neighborhoods and crime: The dimensions of effective community control*. Maryland: Lexington Books.
- Conkin, J. (1975). *The Impact of Crime*. Macmillan: New York.
- Ferraro, K. F. & Grange, R. L. (1987). The measurement of fear of crime. *Sociological inquiry*. 57(1). 70-97.
- Ferraro, K. F. (1995). *Fear of Crime: Interpreting Victimization Risk*. New York: St ag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Ferraro, K. F. (1996). Women's Fear of Victimization: Shadow of Sexual Assault?.

Social Forces. 75(2). 667-690

- Gabriel, U. & Greve, W. (2003). The psychology of fear of crime.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perspective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3(3). 600-614.
- Garofalo, J. (1981). The fear of crime: Causes and consequences. *Th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2(2). 839-857.
- Killias, M. (1990). Vulnerability: Towards a Better Understanding of a Key Variable in the Genesis of Fear of Crime. *Violence and Victims*. 5(2). 97-108.
- Kushmuk, J. & Whitemore, S. L. (1981). *A Re-evaluation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Program in Portland*. Oregon: Executive Summary. U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Morenoff, J. D., Sampson, R. J. & Raudenbush, S. W. (2001). Neighborhood inequality, collective efficacy, and the spatial dynamics of urban violence. *Criminology*. 39(3). 517-558.
- Sampson, R. J., Morenoff, J. D. & Earls, F. (1999). Beyond social capital: Spatial dynamics of collective efficacy for childr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4(5). 633-660.
- Sampson, R. J., Raudenbush, S. W. & Earls F.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5328). 918-924.
- Shaw, C. R. & McKay, M. D. (1942).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Silver, E. & Miller, L. L. (2004). Sources of informal social control in Chicago neighborhoods. *Criminology*. 42(3). 551-583.
- Skogan, W. (1986). Fear of crime and neighborhood change. *Crime and justice*. 8. 203-229.
- Skogan, W. G. (1990). *Disorder and decline: Crime and the spiral of decay in american neighborhood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kogan, W. G. & Harnett, S. M. (1997). *Community Policing, Chicago Styl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arr, M. (1984). Fear of Victimization: Why are Women and the Elderly More Afraid?. *Social Science Quarterly*. 65(3). 681-702.
- Warr, M. (2000). Fear of crime in the United States: Avenues for research and policy. *Criminal justice*. 4(4). 451-489.

